NOV 1 6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St. George Street
TORONTO, CANADA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77 1982년 11월 11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hursday, November 11,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한국군 파병요청

레바논, 평화유지군 보강위해
4천명으로 전쟁방지 힘들어

(베이루트=외신종합) 레바논정부는 현재 레바논에 파견된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3개국 평화유지군을 보강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 영국, 네델란드, 스웨덴등 4개국에도 파병을 요청했다고 베이루트에서 발행되는 중립지 안·나하르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엘리에·사렘 레바논외상이 이들 4개국대사와 개별적으로 만나/레바논정부의 공식파병 요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레바논정부 소식통들은 레바논정부가 이들 4개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서방외교소식통들은 레바논정부의 파병요청을 받은 4개국의 반응은 즉각 나오지 않고 있으나 영국정부는 파병가능성을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루트주재 서방소식통들은 한국에 대한 파병요청제안은 미행정부로부터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쿠웨이트통신은 8일 한국을 비롯한 적어도 9개국이 레바논정부로부터 레바논의 평화유지군에 파병을 요청 받았거나 앞으로 요청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통신은 런던의 신문보도를 인용, 이들 9개국은 한국,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지움, 영국, 네델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라고 밝히면서 이같은 요청은 지난 주말 사렘외상에 의해 이들 9개국들의 대사 또는공관장들에게 전해졌다고 말했다.

쿠웨이트통신은 또한 한국외에도 아시아국가들이 파병요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 신중 검토"
외무부 공식 논평

(서울=연합) 국제평화군 파병요청과 관련, 한국정부는 이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외무부가 8일 발표했다.

정기복 외무부대변인은 당초의 입장을 변경, 레바논정부가 레바논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한국군파병을 요청했다는 보도를 확인했다.

정대변인은 8일 "한국정부는 문창화 주레바논대사를 통해 11월6일 레바논정부로 부터 이같은 요청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외무부는 타부서와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창범 외무부 중동국장은 "파병에 관한 공식요청을 받은바 없다"고 부인한후 "보도내용을 확인토록 현지공관에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이범석외무장관도 국회외무위에서 사렘레바논외상이 현지한국대사와 만나 이같은 요청을 해왔다고 말하면서 이보도를 확인했다.

이장관은 "이같은 문제는 국내및 국외적으로 많이 연구해 보아야 될 소지가 많으며 외무부는 현재 타부서와 이문제를 협의중에 있다"고 전하면서 아직 공식적인 결정을 내린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캐나다한국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폐허가된 베이루트공항지역을 순찰중인 평화유지군소속 미해병대원들. 파병한달이 넘어섰지만 아직도 치안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마엘대통령은 한국등 4국에도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해설

한국·레바논 우호증진 청신호
복구공사 참여 기회될수 있어

4개국 추가파병요청은 레바논내의 외국군철수및 전후복구란 과제를 안고있는 제마엘대통령이 지난10월말 미국을 방문, 레이건미대통령과 레바논현안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상당히 구체적인 의견교환을 가졌던것으로 보인다.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세력철수후 동생이 폭사함에따라 이를이어 불안한 레바논정국을 떠맡은 현 제마엘대통령은 주권회복을 위해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는 시리아군3만, 이스라엘군7만여명의 외국군을 우선 철수시켜야 한다는 책무를 지고 있다. 그리고 나서 레바논정부군을 재정비, 강화해 현재 크게는 6개파, 작게는 40여개의 종교·좌우인 사병단체들로 찢겨있는 레바논의 치안과 질서를 복구한다는 꿈을 갖고 있다.

이같은 제마엘의 구상은 거의 레이건미대통령의 중동평화계획과 일치하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도 레바논에서 외국군이 철수하고 평화가 정착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중동평화처방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PLO철수를 감시하기 위해 지난 8월말 1차로 파견됐던 2천1백여명의 미·프랑스·이탈리아 3개국 평화유지군도 미중동특사 하비브의 구상에서 나왔던 것이다.

1차평화유지군이 철수하자마자 터진 팔레스타인 난민촌학살사건은 외국군대의 지원없이는 레바논의 치안이 도저히 확보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었다.

난민촌학살사건은 미해병대를 비롯, 프랑스 이탈리아등 4천여명의 평화유지군의 재파견을 가져왔다.

미국은 이와함께 드레이퍼특사를 파견, 이스라엘·시리아·레바논당국자들과 외국군철수에 관한 협상과 요르단강서안에 요르단·팔레스타인연방자치체 건설등의 중동평화안 실현을 모색하고 있다.

레바논내 최대무장세력인 팔랑헤기독민병대를 무장해제시키는 작전이 레바논정부군에 의해 시도되기 시작했고 이와함께 미국등 3개국평화유지군은 팔랑헤의 보루인 동베이루트순찰임무를 개시했다.

그러나 아직 팔랑헤당이 무장해제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유혈충돌사태까지 몰고 올 위험이 높다.

제마엘대통령은 최근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순방하면서 레바논정부군의 재건을 위한 무기지원과 평화유지군을 3만명수준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미행정부는 3개사단을 무장시킬수 있는 규모의 무기지원을 약속하고 프랑스도 6억프랑어치의 무기제공에 동의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해병대가 추가로 파견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무성도 그 가능성을 공식시사한바 있다.

그러나 대규모 미해병대의 투입은 무장해제 과정에서 레바논내 사병단체와의 충돌가능성을 높일뿐 아니라 미국내 여론이 「베트남 망령의 부활」이라고 비난할 소지도 크다. 따라서 레이건행정부는 현3개국의 평화유지군을 보다 많은 국가로 구성함으로써 평화유지군이 국제적인 법적지위를 얻게하고 앞으로 예견되는 사태에 대해 보다 책임을 나누어 가질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 유명무실한 남부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는 11개국7천여명의 유엔잠정 레바논주둔군(UNIFIL)도 평화유지군에 가담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군파병요청이 사실이라면 그 제의는 현재 레바논에서 중동특사로 활약하고 있는 드레이퍼특사에 의해 레바논정부에 전달됐을 것으로 외교소식통들은 보고있다.

미국은 한·미우호관계의 돈독함을 믿고있다. 반면에 레바논의 제마엘정권은 PLO가 철수한 후 전보다 훨씬 개선된 대한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마엘대통령은 지난 10월23일 취임식때 문창화 주레바논대사에게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제마엘은 또 지난73년 부친 피에르·제마엘이 한국을 방문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날 북한대사는 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간간이 레바논의 전후복구에 1백50억달러이상이 소요되고 따라서 한국기업이 복구공사에 참여하는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대두된 한국군의 레바논파병제의는 이런 복잡한 상황으로 볼때 어떻게 결론지어질지가 주목된다.

데모 대학생
서울·대구10명체포

(외신-LA지사 경유) 한국경찰은 6일 서울과 대구등지 대학 캠퍼스내에서 반정부데모를 선동한 학생 1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 10명중 8명은 서울내 4개대학에서, 나머지 2명은 대구의 한 대학에서 각각 체포됐다.

이들은 지난 2일과 3일 각기 대학내 캠퍼스에서 반정부 유인물을 살포하면서 데모대를 규합하려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LA에 온 윤보선전대통령(86세), 친척들을 만나보기 위해 잠시 들른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중국 망명 오영근 중공조종사
소령임관, 상금 $270만

(대만-외신) 한국을 통해 자유중국으로 망명한 중공조종사 오영근은 「영웅적인 망명」으로 275만달러 상당의 보상금과 함께 대만공군 소령으로 임관됐다고 대만의 군사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8일 공식행사를 통해 대만공군에 편입되었으며, 보상금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 중공조종사는 지난 10월16일 미그19를 몰고 한국에 도착했으며, 31일 미그기를 한국에 남겨둔채 대만으로 망명했다.

윤보선 전대통령
가족 만나러 LA에

(LA지사) 윤보선전대통령이 부인 공덕귀여사와 함께 TWA기편으로 7일 LA에 도착했다.

그의 LA방문은 친척들을 만나기 위한 것이며, 특별한 목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에는 박민수 총영사, 등 영사관 관계자들과 윤장선씨등 친척이 마중 나왔으며, 장남 윤상구씨가 수행하고 있었다.

올해 86세인 윤보선 전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모교인 영국의 에딘버러대학 초청으로 동교를 방문, 귀국길에 LA에 들렀으며, 팜스프링스에서 2주간 휴양할 예정이다.

－社 告－

오는 11일(목)은 Remembrance Day로 우체국이 휴무하기 때문에 12일자 본지신문 배달이 하루 지연됩니다.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강상욱
CANADA SAVINGS BOND는 언제나 현금으로 찾을수 있는 가장 안전한 투자대상이 된다. 이는 매년 가을에 한번씩 발행되며, 작년에는 주문이 홍주하여 마감일을 앞당겼읍니다. 저희는 이의 구입에 일체의 수수료를 부가하지 않고 모든 문의에 무료로 봉사하고 있다.

은하 보석
다이아몬드·순금
관곰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약혼·결혼예물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B) 622－5147

대구계성중고등학교
동창회
금번 모임에 동문 제위께서는 모두 참석하셔서 옛정을 되새기며 그동안 밀렸던 얘기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때 : 1982년11월13일(토) 오후7시
곳 : 10 SANWIN CRT. WILLOWDALE ONT.
연락 : 921－8809(MR.김)
499－3721(MR.박)
대구계성중·고등학교
동창회장

특별요금으로 모십니다!
출발일자 11월14일(일) 자유귀환
11월25일(목)
12월 5 일(일)
12월16일(목)
12월19일(일)
12월30일(목)

535-6004
535 8801
서울여행사
여행계획과 간편한 수속,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의 여행을 도와드리겠읍니다.
SEOUL TRAVEL
631 A BLOOR ST. W
최 동 주
(R) 293-9970
IATA

제64회 모국동계체전
아이스하키
중등부 선수 선발
1월중순에 한국에서
체전에 참가예정.
일시 : 1982년 11월20일(토)
오후 9 시45분～10시45분
장소 : Cheswood 아리나
4000 Chesswood Dr.
Downsview
자격 : 1968년 이후부터 1970년 사이에 출생한자
※모든 장비는 각자 지참.
연락처 : ☎ 741－2522
재캐나다 대한체육회
아이스하키협회
회장 이 종 원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L. TOR, ONT. M5S 1A5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Tor On
M5S 1W3

『신문발행권』 취소 통제

민한당, 언론규제 완화법안 국회제출

(서울-LA지사 경유) 민한당은 8일 언론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신문의 발행권을 취소하고, 출판된 정기간행물을 압수하는 것을 보다 통제하고, 편집인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제출됐다.

현존 언론법은 정부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면 출판된 간행물을 압수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어날 제출된 법안은 이 부분을 「이들 간행물들이 헌법을 교란시키고, 평화와 질서를 파괴시킬 경우」로 수정했다.

또 현존법은 「편집인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범죄적인 내용의 보도를 방지 못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묻도록 돼있는데, 민한당은 이 부분을 「편집인들이 범죄적 내용을 의도적으로나 커다란 실수로 인해 보도했을 경우에만」으로 수정했다.

새회장에 홍승규씨

베타와이즈맨클럽

토론토한인베타와이즈멘클럽(회장 이서현)은 일. 임원및 전임회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82~83년도 임원진및 각위원장 인선을 마쳤다.

81~82년도 홍승규 부회장(차기회장)이 회장으로, 홍사렴시가 차기회장으로, 사무장에 김팡웅씨, 회계에 박대현씨, 그밖에 부서에 아래 인사들이 각각 선정됐다.

◆베타클럽 임·위원

회장: 홍승규
차기회장: 홍사렴
사무장: 김팡웅
회계: 박대현
Y연락간사: 김창열
직전회장: 이서현
증경회장: 김순창
명예회원: 존·잴릴리
봉사위원장: 이영일
프로그램위원장: 강학수
회원부위원장: 구상회
출판: 강대길
형제애 기금: 조한철
여행조정위원장: 한상훈
장학기금위원장: 김창범
친교위원장: 안병원
모금위원장: 강공선
Y메넷위원장: 박옥선

이들의 취임식은 11월11일(목) 토론토 웨스트엔드 YMCA에서 열리는 와이즈멘즈클럽 지역대회때 거행된다.

문화인의 반려자
한국일보·533-2361

◆눈수술에 성공, 시력은 회복됐으나 은퇴를 선언한 슈가레이·레너드。

세계프로권투 웰터급챔피온

레너드 은퇴 발표

(볼티모어) 세계 프로권투 웰터급 챔피온 슈가레이·레너드가 9일 은퇴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두개의 세계챔피온과 약 4천만달러를 벌어들인 레너드는 이날 은퇴식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은 지난5월 눈수술을 받고 몸은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더이상 복싱에 흥미를 잃어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한번 눈을 다친 사람은 거의 회복되기 어려우나 나는 기적을 이루었다"고 말한 레너드는 은퇴식을 미들급챔피온 존·해글러, 전헤비급챔피온 무하마드·알리, 켄·노터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고향 볼티모아시빅센타에서 가졌다.

프로권투사상 가장많은 2천만달러짜리 파이트·모니를 받고 미들급챔피온 존·해글러와 대전할 것을 제안 받았던 레너드는 은퇴를 함으로써 해글러와의 대전은 물론 없을것이라고 은퇴식에 참석한 7천여팬들에게 선언했다. 그의 아내 주아니타는 "그가 벌은돈으로도 충분하다. 나도 그의 은퇴를 적극 찬성했다"고 말했다.

릴릴나르는 잽과 다양한 기술의 소유자인 레너드는 지금까지 프로권투에서 33번 싸워 지난 80년7월 몬트리얼에서 로베르트·듀란에게 한번패했을 뿐이다.

레너드는 5개월후 뉴울리안즈에서 듀란에게 8회 TKO승으로 복수를 거두었다.

몬트리얼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후 프로에 진출한 레너드는 79년11월 윌프리드·베니츠를 물리치고 WBC웰터급 타이틀을 획득했고 81년 9월에는 WBA웰터급챔피온 토마스·헌스마저 14회 TKO로 물리쳐 명실공히 세계챔피온이 됐다.

지난 5월14일 로저·스타포드와의 대전직전 왼쪽눈의 시력장애를 일으킨 레오나드는 대전을 포기하고 눈수술을 받았다. 레너드프로전적은 33전32승(16TKO, 7KO, 9판정) 1패(판정)였다.

캐나다달러 강세 유지

1달러＝미화 82.05센트

캐나디안·달러는 10일 82.05센트(U.S.)로 거래됐다.

금년초 84.7센트까지 올라갔던 캐네디안·달러의 대미환율은 6월1일에는 80.5센트로 하락했으며 6월22일에는 기록적인 76.86센트까지 폭락한 이후 강세를 유지해왔다.

소식통들은 그동안 월별 무역흑자가 늘고 가을철들어 수입이 격감한 것을 달러강세의 원인으로 보고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달러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보다 약간씩 높은 금리를 책정해 왔다.

스트랄 비지네스를 하던 김씨는 지난 주말 부인 손주라씨와 함께 이집트를 거쳐 고국을 방문했다. 캔팩(Canpac)건축자재회사 부사장인 김씨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1,600만 건설계약 체결에 성공했고 이중 600만달러의 용역은 한국 경남기업에 넘기기로 결정, 구체적 협의를 위해 한국에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달 중순께 토론토로 돌아올 예정이다.

창간10돌 잔치

〈코리언저널〉사

동업〈코리언저널〉(사장 유영린)의 창간 10돌 리셉션이 오는 20일(토) 하오3시 토론토한인회관(20 Mobile Dr. Tor.)에서 열린다.(연락전화: 757-8000)

결혼축하

신랑: 최규남씨(최규흘씨 동생)
신부: 마가렛·패델렉양
때: 12월5일 하오7시
곳: 올드·밀교회(21 Old Mill Rd.)
피로연: 더·올드·밀 레스토랑

교민동정

◆김영일=부친인 김치배전 육군대령과 제빵및 레

치과의사 윤씨 불루어서 개업

◆윤중태씨

벵쿠버에서 1년간 진료하다가 약2개월전 토론토로 다시 온 치과의사 윤중태씨가 오는 15일 블루어·스트릿·웨스트 360번지 307호실에서 개업한다.

윤씨는 77년 토론토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4년반동안 토론토에서 환자를 진료했다.

블루어·스트릿 선상, 스파다이너·애비뉴의 1블록 서쪽, 한인상가내에 자리잡은 윤씨의 진료실은 월~금 상오9시~하오6시, 토요일 상오9시~하오3시까지 진료하며 오는 20일 하오2시~5시30분 개업파티를 갖는다.

전화는 925-2408.

◆23살의 시장 스티브·클락

22살의 브록빌 시장은

만화를 보고 록음악을 즐긴다

토론토동쪽 킹스톤근교 조그만도시 브록빌의 신임시장은 아직 엄마품에서 특른물을 들으며 만화책을 보는 풋나기이다.

그러나 22살의 연소한 새시장 스티브·크록씨는 몇천달러돈도 운영해본 경험은 없으나 이 도시의 1천5백만달러 예산은 열성을 다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의 시장선거에서 53살의 전임시장 피터·루이스후보를 3,902표대 2,844표로 누른 클락시장은 대학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한 실직자였다.

지난10월초 만화가로서 직장을 찾지 못하자 클락은 연봉 15,000달러짜리 시장자리에 도전키로 했다.

이번 승리에 놀라지 않았다는 클락은 "선거유세를 쉽게 이끌면서 승리를 예상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한편 전임시장 루이스씨는 "선거유세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면서 상대후보의 과소평가가 패한 원인이였다"고 낙선소감을 말했다.

선거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은 클락시장의 승리를 시민들의 전임시장에 대한 반발의 표시라고 보고있다.

클락시장의 정치경험은 대학에서 선택과목으로 정치학 한과목을 들었을 뿐이다.

▲키 5피트6인치 몸무게 1백18파운드의 지나프란시스(20). TV극 「제너럴 하스피털」에서 인기를 한몸에 모았던 프란시스는 이번 시즌부터 「제너럴…」을 떠났다. 이제부터는 좀더 요염한 포즈를 취해야할듯.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萬5의 사나이

<106>

29분의 1 ⑪

朴文子 몸매에 순간 매혹됐던 馬형사는…

『넌 몰라도 돼. 엄마가 시킨대로 해야한다 알았지?』

그녀는 아들의 볼에 키쓰를 해주고나서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코트를 벗었다. 안방에 붙어있는 욕실로 들어가 거울을 들여다 보면서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급하게 고동치고 있는것이 똑똑히 보였다. 진정해야한다. 침착해야한다. 그녀는 머리를 매만졌다. 거실에는 모세보다 더 무서운 인물이 앉아있다. 그녀는 전신을 떨었다. 올것이 오고야 말았다. 그런데 너무 빠르다. 어떻게 될까.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닌가. 형사가 무섭다더니 과연 무서운가 보다.

그녀는 거실로나갔다. 형사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거실이 가득차는 느낌이었다. 돼지 같은 형사였다.

『추운데 한잔 드시겠어요?』

『아, 뭐…괜찮습니다.』

『스카치 한잔 드시겠어요?』

『네, 뭐 아무거라도 좋습니다.』

그는 양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그가 잘알고있는 것은 소주 뿐이었다. 그점에서 그는 촌놈이었다.

『이게 뭡니까?』

[illegible]이 들어있는 글라스를 들여다보며 그가 물었다.

『코냑이에요. 나폴레옹 코냑이에요.』

『아, 그 유명한 나폴레옹인가요. 전 소주 뿐이 몰라서요.』

그는 멋적어 하면서 단숨에 쭉 마셔버렸다.

『톡 쏘는게 기막힌데요.』

그는 농담을 했었다.

『한잔 더 하시겠어요?』

『아이구, 이거 아빠도 안 계신데….』

『괜찮아요.』

일어서서 걸어가는 그녀의 몸매가 상당히 육감적으로 보였다. 가는 허리 아래에서 흔들리는 둔부가 바지를 찢을 듯이 팽팽했다. 저런 여자를 당해내려면 꽤나 튼튼해야겠는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녀는 숫제 술병을 들고왔다.

『아이구, 이거 미안합니다. 이 아까운 것을 이렇게 주십니까.』

『드세요.』

그녀는 마른 안주를 앞으로 밀어놓았다.

그녀는 목까지 올라오는 검은 셔츠를 입고있었다. 셔츠가 꽉 끼어서 젖무덤이 도발적으로 솟아나와 있었다. 그것은 건강한 남자라면 한번쯤 만져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하는 그런 가슴이었다. "아주 풍륭한 가슴을 가졌는데." 마인은 두잔째를 비웠다.

『이런, 내 정신좀 보게. 술만 마시고 있네.』

그녀는 반쯤 잔을 비우고 있었다.

『왜 이리 이사 오셨읍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그녀가 되물었다.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하는 거야 자유지요. 저는 이사하신 이유를 묻는 겁니다.』

『아파트가 편할 것 같아서 이사했어요. 사실 살아보니까 편해요.』

朴男 그림

냄새덜나는 김치 만들려면…

〈요리연구가 왕준연씨의 비법〉

새우 삶은 국물·육수로 김치국물

사과·배·감 등 과일도 넣고…

외국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국인이 잊기 어려운 것중의 하나가 김치맛이다.

그러나 한국인보다는 외국인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좋은 것이라도 남을 의식하지 않을수도 없는 일.

김치의 맛을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너무 요란스럽게 냄새가 나지않는 것으로는 역시 고추가루가 들어가지 않는 백김치가 아닐듯 싶다.

김치란 원래 발효시켜 먹는 것이기 때문에 독특한 냄새가 완전히 없을 수는없는 일.

최근 LA를 방문한 요리연구가 왕준연씨는 새우 삶은 국물이나 육수로 김치국물을 만들면 비교적 냄새가 덜난다고 귀뜸한다.

김장철을 맞아 냄새가 덜 나는, 그래서 외국인들에게도 자신있게 권할수있는 김치담그는 법을 왕씨로부터 들어본다.

◉실파동치미

▲재료-배추속대 1포기, 붉은 사과 푸른사과 각각 1개씩, 무우반개, 배·단감·당근 각각 1개씩, 대추 5개, 마늘 1쪽, 파 3뿌리, 생강 조금.

▲만드는법-배추는 3-4cm로 썰어 깨끗이 씻은 다음 소금은 조금만 뿌린다. 배는 껍질을 벗기고 사과·감은 껍질채 6등분을 내어 씨를 빼고 도톰하게 썬다. 당근·대추등도 보기좋게 썰어 소금으로 엷게 간한다. 양념이 배이면 따뜻한 물을 부어 너무 짜지않게 한뒤 서늘한 곳에서 익힌다. 48시간뒤에 꺼내면 크리스마스등 파티에서 외국인들에게 호평을 받을수 있는 김치가 된다.

◉배추백김치

▲재료-배추 1파운드반, 무우 적은것 1개, 붉은사과 1개, 배 반개, 새우(껍질채 있는것이 좋음) 또는 고기 반파운드, 생강, 마늘, 파, 실백, 미나리, 실고추.

▲만드는법-배추는 4등분하여 소금물에 절인다음 4~6시간후 깨끗이 씻어 3~4cm로 자른다. 무우는 얇게 썬다음 연한 소금물에 절인다. 배와 사과는 씨를 빼내어 얇게 썰고, 미나리 파도 깨끗이 씻어 실고추와 함께 3~4cm로 썬다. 위의 재료를 모두 소금으로 짜지않게 간을 맞추어 놓는다. 한편 새우나 고기는 전날 미리 삶아 기름을 걷은후 가제로 한번 걸른다. 간이 배이면 거기에 이 국물을 붓는데 국물의 양은 자작자작할 정도. 역시 48시간 뒤에 꺼내 먹는다.

배보쌈김치를 할때에는 국물을 내기위해 삶은 새우를 보쌈김치에 그대로 넣어도 좋으며, 너무 많으면 냉채나 무침에 넣어먹으면 좋다. 고기 역시 푹 눌러 놓았다가 얇게 썰어 냉채를 만들어 먹으면 좋다.

◉장김치

▲장김치는 소금에 절이지않고 맑은 장에 절이는 것이 특징.

배추를 깨끗이 씻어 썬후 간장에 절였다가 건져내어, 밤·대추·미나리·실백·송이버섯등을 넣고 다른 김치와 같은 양념을 한다. 김치를 절였던 간장을 묽게한 후 그것으로 발효시키는 것. 옛날에는 궁중 수라상에 놓였던 김치로서 육수국물과 마찬가지로 김치냄새가 덜 난다.(L.A.지사)

마크(로고)
현상금공고

★회사명
(株)현영일국제경영콘살턴트
Young I. Hyun
International Management Consultants Inc.
○Human Resourses Management.
○International Capital Management.
○Business Valuation.
○Investment project for prospective immigrants.
○Management consulting for profit oriented enterprises.
투자】
※ Logo Letterhead 한글, 영문(단색)
Professionalism, integrity, reputation, and Creaditability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낼곳: 58 Talwood Dr. Don Mills, Ont. M3B 2P5
▲현상금액: 상당액의 사례금 ($500.-)
▲응모마감일자: 82년 11월30일까지.
국제경영 Consultant
공인회계사(C.A.) 현영일

새로운 MANAGEMENT

고향의 맛
식당
서울하우스
금번 새로 서울식당을 인수받아 교민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과거와 같이 계속 애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요일도 영업합니다
주7일 Open
12시부터 새벽1시까지
615 BLOOR ST. W.
532-0602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현재 주류면허 신청중.

○중공에서 진짜 우황청심환 홍삼·녹용이 들어왔읍니다.
남녀노소
보약먹을 시기입니다

536-6854
하르빈한약상사
643 A- BLOOR ST. WEST

실협뉴스
K.B.A.NEWS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627A BLOOR ST. W.
TORONTO ONT. M6G1K8
533-7923-4
COMPLAINT CENTRE
(HOTLINE)
533-8344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 (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실협의 우수한 전통 이뤄지기를

태권도대회 박두

실업인협회 후원하에 캐나다한인태권도협회(회장 서정길)가 주최하는 제5회 캐나다태권도선수권대회가 1주일후로 박두하였다.

욕대학체육관(4700 Keele St.)에서 11월20일(토) 상오 11시30분부터 시작되는 본 대회에 대하여 협회는 전 회원에게 입장권을 배부하여 외국인 고객들에게 판매함으로써 태권도협회의 사업도 후원하고, 국위도 선양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미 일부회원들로부터는 티켓을 더 요청받고 있는데, 배부된 포스터를 눈에 띄는 장소에 붙이는 것은 물론, 관심있을만한 손님들에게는 말로도 권유하여 우리 다 같이 처음으로 시도되는 한인단체의 후원사업에 적극 협력해 주기를 임원진은 바라고 있다.

판매수수료가 50%라는 자체보다도 뜻있는 한인단체의 사업을 돕는데 공헌할 수도 있는「실업인협회」임을 시도해 보는 첫사업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내년부터는 Maple Leaf Garden에서의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한인태권도협회의 희망이 이루어지도록 마지막 1주일에 박차를 가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11월20일이 지나면 총판매액의 50%와 남은 티켓을 반신봉투에 넣어 우송해 주면 된다.

잡지특별수당

지난주 보도된 바와 같이 출판업자(Publisher)로부터 받을 수 있는 10% R.D.A.(Retail Display Allowance)를 위해 관계회사와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 협회는 관계회사와의 콤퓨터에 의한 실매상보고서 매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개개 가게별 보고서 작성의 방법으로라도 내년 1월부터는 이 수당을 받아내기로 작정하고 추진중에 있다.

대행업자와 계약체결로 1월1일부터 매 3개월마다 신청하기로 되어 있는 이 수당은「실업인 협회」회원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고, 비회원으로서 이 혜택을 받기를 희망하는 상점은 12월20일까지 협회에 가입절차를 마친 상점에 한해서 가능하다.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이 수당을 획득하게 되면 막대한 노력과 시간을 소모해 가면서 크레딧 문제등으로 바리를 감수해오던 회원에게는 새해들어 최대의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하겠다.

협회후원, 회원의 적극협력 요망

「성인잡지판매규제법」

성인잡지 판매에 관한 당국의 관심이 점점 짙어져 가고 있다. 현재 협회에 알려진 것만도 10개 회원상점이 "판매를 목적으로 한 외설잡지의 소지"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같이 최근 갑자기 이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은 소매상점에서의 이의 취급량이 늘어난 것과 이에 대한 일반대중의 항의가 증가함으로써 지난 9월13일 Eggleton 토론토시장이「소매상점에서의 성인잡지 진열」에 관한 by-law제정을 시의회에 요청하였고, 시의회는 내년 1월 첫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수락한 것이 그 큰 원인으로 보인다.

건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근간 시내의 각 Convenience Store에 외설잡지의 취급량이 급증하여,

(1)아이들이 쉽게 사볼 수 있고,

(2)이러한 잡지를 아이들이 뒤적임으로써 혼잡을 초래하고,

(3)나체사진의 노출로 공중도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4)성욕을 자극함으로써 일반에게 해를 끼친다는등 내용의 항의가 늘어가고 있으므로, 자녀들의 건전한 성교육이 부모가 아닌 잡지업자나 가게주인에 의해서 지장을 초래하게 할 수 없다는 원칙에서 이 잡지의 진열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해주기 바란다는 것이다.

건의된 제재내용은 이미 by-law가 제정실시 되고 있는 Hamilton, Burlington, 그리고 Newmarket의 예에 준하여,

(1)5휘트 이상 높이로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진열할 것과,

(2)일반의 눈에 전혀 띄지 않는 곳에 두든지, 또는 잡지의 제목 이외의 부분은 일반이 볼 수 없도록 불투명 물체로 가려놓는다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그리고 이 법령은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업체나, 일반이 미리 알고 있는 성기구의 취급업체는 제외하고,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소매상점(Retail Stores)에 대한 법률제정을 요청하고 있다.(Newmarket의 by-law는 위반자에게는 매건당 $1,000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Metro Toronto News회사는 지난 9월21일 이글턴시장과 면담하고, 이를 법률로 제정하지 말고, 자진해서 이러한 당국의 요구조건을 준수하도록 해 달라고 건의한 결과 9월 29일의 회신에서 내년 1월에 시의회에 상정되기까지 각 상점이 자발적으로 이에 협조한 실적이 실증되면 시의회에서도 이 안건이 상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말이 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이 법률로 제정되는 경우, 각 상점은 의무적으로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따라서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되므로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이러한 당국의 요구에 순응,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시민의 불평을 받고 취제에 임하고 있는 경찰측의 관점에서는 Mac's나 Becker's가게에 비하여 일반 개인가게는 취급하고 있는 각종 잡지중 외설잡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너무 크고, 진열에 무관심하여 아이들이 쉽게 손이 갈 수 있는 자리에 진열되고 있음으로 해서 손님들의 항의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법률제정의 움직임 뿐 아니라, 파외의 시간과 비용을 쓰게 되는, 손님들의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각자가 자진협조함으로써 이 문제가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전되도록 유의해 두기 바라고 있다.

〈알 림〉

(1982년 9월 20일부터)

근간 Dempster 빵회사의 일부지역 운전사들이 본사가 규정한 원가와는 다른 가격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서 공지하오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O.K. Bread 675g	68.7 쎈트
O.K. Bread 450g	58.0 쎈트
100% Whole Wheat	78.9 쎈트
Scone Long Wh. Bread	78.9 쎈트
T.M. Crusty White	70.4 쎈트
Stone Gr. Whole Wheat	83.8 쎈트

〈회원투고〉

시의회 상정

박 찬 도(실협이사)

봄에 씨뿌리고, 여름내 땀흘려 잘 가꾸면 가을에 좋은 수확을 올린다.

한인들이 캐나다에 이민와서 가게를 하고, 바쁜 틈을 타서 실업인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근10년동안 상인의 권익을 위해 일해왔다. 집행부 임원들과 이사들은 자기 호주머니 돈을 털어 가면서 회의를 하고, 함께 잘 살아보자고 끈질긴 노력을 해왔던 것이다.

그 정성이 엉겨져 봄을 맞이하게 되었다. 봄이 왔으니 씨를 뿌려야 한다.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말이다.

씨를 정선해 뿌려야 하고, 비료도 알맞게 주어야 할 것이며, 잘 가꾸어 가야 할 것이다.

덮어놓고「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되기는 되는데, 죽쩡이가 된다. 대부분의 국내외 한인단체와 같이 견실하지 못해진다.

우리가 일을 바로 잘하는데 참고되는 말을 한 마디 한다면, 우리는 대체로 자아의식이 박약한 일면이 있다.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너무 불평과 반대를 많이 하여 일하는 사람을 괴롭혀, 일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일이 많고, 한편 분명히 크게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도 대세에 눌려 말못하여 잘못을 공연히 키우는 수가 흔히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일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사소한 실수나 잘못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어야 하며, 한편 원칙에 어긋난 일이 있다고 보면 남이야 뭐라든 단호히 시정을 촉구하는 용기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전자는 도의적 의무이며, 후자는 도의적 권리라고 생각한다.

이와같이 겸손과 긍지를 가지고 항상 격려하고 충고하고, 단호히 비판하고, 응징도 가하는 책임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책임 말아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안다.

한국사람들의 약점이 평상시 도의적 의무도 응졸해서 못하고, 한편 도의적 권리도 맥없이 되어 제대로 못하는 일이다. 그러면 봄되어 씨뿌려도 가을에 수확은 적다. 그 누구도 탓할바 아니며, 자신들의 탓일 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의「실업인협회」는 "화목과 견제"의 전통이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실협과 횡적유대를 가질 협동조합도 그런 우수한 전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제 봄이 왔으니 씨를 뿌리라! 우리는 증리를 모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용의주도하게, 그러나 박력있게 협동조합을 출범시켜야 겠다. 좋은수확을 올리고 못올리는 것은 전체 조합원의 자질에 달렸을 것이다.

〈법률상담〉

유서를 수정하는 방법

Ralph M. Levine　강 공 선 역

사정에 따라서 유서에 수정을 가하고 싶은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간단한 수정이면 유서보족서(Codicil)를 첨부함으로써 유효하지만 수정사항이 많으면 유서를 새로 작성하도록 권하고 싶다.

일단 유서를 작성하고, 본인과 입회인이 서명을 했으면 추가기입하거나 삭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잘못하면 유서가 무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절대로 문구수정도 해서는 안된다. 암만 사소한 것이라도 고치고 싶을 때는 요식에 따라서 변경함으로써 법적인 효력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유서의 수정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유서의 여백을 이용해서 수정이나, 또는 삭제를 하고「이니시얼」(Initial)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수정사항의 법적효력 발생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중의 하나이기는 하나 바람직한 방법은 못된다. 유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역시「유서보족서」를 첨부하는 방법이다.

유서보족서는 유서의 어느 부분을 삭제, 또는 추가한다는 유서의 개정을 말하고, 유서 자체와 똑같은 집행절차가 필요하며, 간단한 수정을 하고자할 때에 이용된다.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서와 보족서가 동일하게 취급되어 보족서 안에 들어있는 수정사항은 유서의 내용에 들어가게 된다. 물론 여러개의 보족서가 있어도 무방하지만 복잡성을 띄기가 쉬우므로 모든 변동사항을 묶어서 새로이 유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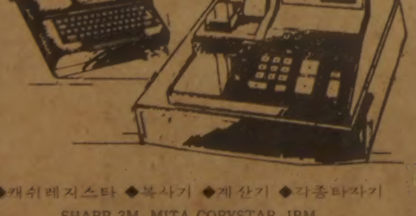
요컨데 유서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삭제, 삽입, 수정등을 직접 유서상에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본인과 입회인이 서명 없이 유언장 위에 직접 수정을 가하면, 확증이 없는한 원본에 본인과 입회인이 서명한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못처럼의 유효한 유서의 일부가 무효가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각종김장김치 주문환영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훼밀리·닥터 (의사 왕운린)
600 SHERBOURNE ST. #402
(B) 968-1543 (R) 363-9196
월~금: 오전10시~오후7시 토: 오전11시~오후3시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SKYWAY BUSINESS MACHINES
SPECIAL 30% OFF FOR K.B.A. Members
1. 각종전자계산기 수리
2. PAPER ROLL
(Each Case=100 Rolls)
3. NCR STYLE (수동식)



◆캐쉬레지스타 ◆복사기 ◆계산기 ◆각종타자기
SHARP 3M, MITA COPYSTAR, IBM
SALES-LEASING, REPAIRS & SERVIC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B)675-1295~6, (R)671-0938 김 인 환

Welcome to K.B.A.

금주의 신입회원

본협회는 명실공히 범실업인단체로서 성장하기 위하여 실협의 기치하에 관심있는 모든 한인업체를 환영하고, 이에 따른 직종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사업에 종사하시는 교포실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명예회원〉

본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명예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신 금융계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카나다 한국외환은행	최승낙
한일은행 토론토사무소	한철환
조흥은행 토론토사무소	이원순
토론토한인신용조합	한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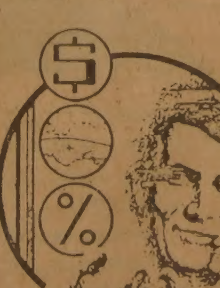
〈준회원〉

Ralph Levine 변호사	R. Levine

〈회　원〉

J & J Jug Milk	윤석진	Quality Mart	박부웅
Flower Town	고의규	Greenfield Variety	이영준
이경복 회계사무소	이경복		
최태권회계사무소	최태권		

실협회원만이 가입할수있는 단체상해보험



당신의 가장 귀한 재산은 수입을 보장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CAROLINA LIFE & ACCIDENT INSURANCE COMPANY 는
당신의 수입의 손실을 보호해드립니다.
◇사고 당일부터 현금으로 드립니다.
◇별도 지정인이 없는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정부나 기타 보험회사의 보상에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해 드립니다.
◇직장내외를 막론하고 24시간, 365일 보호합니다.
전화224-2235 DEAN VERNON 을 불러 주세요.

資源관리法案、새爭點化

野圈서 "基本權위배" 違憲論주장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資源관리法案」에 대해 民韓、국민당등 野圈에서는 이법안이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헌법35조에 위배된다고 違憲論을 제기、이법안을 철회하거나 전면수정할것을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이법안은 남은정기국회會期중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것같다.

民韓黨은 5일국회 예결위에서 이 문제와 관련 違憲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데이어 오는9일 당무회의에서 최종당론을 마련키로했으며 국민당도 6일상오 총재단과 간부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측에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民韓黨의 林鍾基총무는 6일 『자원관리법안은 이미 폐기된 국가보위특별조치법 보다도 국민의 재산권이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더많다』고 지적한후 『오는 9일의 당무회의에서 이에대한 대책을 포함한 黨論을 마련하게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이어 『특히 이법안에서 발동요건을 「장래에 있어서의 필요시」로 막연히규정하고 있는것은 입법을 백지위임하는것과같다』고 주장했다.

金鉉圭 정책심의회 의장은 『이법안은 違憲소지가 다분히있는만큼 발동요건을 明示的으로 규정해야한다』면서 『필요한경우 당내에 이문제를 다룰 特委를구성하는 방안도 고려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당도 이날상오 총재단과 당직자연석회의를열어 이법안에대해 협의、현재의旣存관련법으로도 자원관리 법안이 명시하고있는 목적수행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법안을 제출함으로써 국민불안감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데 의견을모으고 정부가 스스로 이법안을 철회해 줄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이러한 野黨圈의 움직임에 대해 民正黨의 李鍾贊총무는 『법안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국회관련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심의할수도 있을것』이라고 말해 이법안의 수정이나 보완가능성을비쳤다.

豫備軍·現役兵 제외

政府、「必要時」를 「戰時등」으로修正용의

정부는 야당의반대로 논란을 빚고있는 資源管理法案중 각종조치의發動요건이(국정) 「장래에 있어서의 필요시」라고 추상적으로 되어있는것을 「戰時事變 또는 이에準하는 非常事態下에서」등의 구체적표현으로 修正할 용의가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非常計劃위원회의 관계자는 6일 『당초 이법안의 草案에는 戰時事變또는 이에준하는 비상사태하로 돼있었으나 관계부처의 의견을듣는과정에서 이같은 明示的인용어를 쓸때 對內外的으로 전쟁준비를 하는것같은 잘못된 인상을주고 北傀의 선전자료에 惡用될 여지가있어 「…필요시」라고 표현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국회심의 과정에서 문제가있다면 草案대로 환원시킬수도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이법안에대한 충분한 홍보없이 법안을 제출케돼 오해를 불러일으킨것을 사과한다고 밝힌 이관계자는 또 이법안이 국민기본권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특히 훈련대상이 限定的인 「중점관리대상」으로 돼있고 人的자원의 훈련보다 파악에 중점이 두어지고있는 만큼 꼭 그렇게만 주장할수 있는것은아니다』고주장했다.

이관계자는 또 이법안은국가保衛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하면서 긴급한경우 立法으로 보완할것을전제로 경과규정을두어 계속 시행케돼있는 資源운영에관한 규정(舊保衛法5條근거)을 대부분 그대로 옮겨놓은것이라고 설명하고 罰則조항을 삽입했으나 병역법의 벌칙에비해서는 가볍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이법안의 대상에서 예비군대상자와 현역병이 제외된다고 말했다.

社会漫評

多多益…

常設 投機조사반 설치

警察 수사전담반도 투입

惡德복덕방등 계속 추적

江南「투기지역」告示·아파트값自律化검토

정부는 6일 建設部산하에 常設부동산投機調査班을 설치、복덕방등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업체에 대한 추적조사에 나서는 한편 경찰전담수사반을 서울江南투기지역에 투입、아파트 부정분양여부를 집중수사하고 악덕복덕방과 상습투기자들을 가려내 형사처벌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江南일부지역을 부동산투기지역으로 고시하는 문제、아파트분양방법과 분양가격등을 자율화 방향으로 재검토하는 문제、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복덕방제도를 許可制 또는 申告制로 전환하는 문제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검토하고있다.

정부는 가까운 시일내에 경제기획원 내무부 재무부 건설부 서울시 국세청등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어 ▲국세청의 세무조사 ▲경찰수사 ▲건설부 조사반의 부동산업체추적 조사등을 토대로 부동산투기동향을 재점검하고 필요할경우 좀더 강력한 제2단계 규제 조치를 취할방침이다.

建設部는 4일 주택공사와 국토개발연구원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설조사반을 住宅局산하에설치、開浦와 果川지구 주공아파트의 분양및 전매실태를 조사키로 하는한편 개포1차분과 2차분 주공아파트5천8백80가구 가운데 36%인 1천5백6가구가 당초분양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건설부는 앞으로 신규분양하는 모든公共아파트는 초기부터 추적조사를 실시、轉賣에대해서는 讓渡및 稅務조사등 제재조치를하는등 공공주택투기에 대해서는 주택경기와 관련없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상당수 不正으로당첨

書類위조해준 公務員 6명拘束·수배

한편 경찰은 서울開浦洞등 과열투기현상을 빚고있는 지역에대해 전담반을 투입、주민등록위조등 아파트 부정분양문제를 집중수사하는 한편 악덕 복덕방차、전매자도 추적조사로 했다.

서울시경은 지난9월 開浦洞주공2차아파트 분양때 당첨된 사람들중 상당수가 재형저축가입통장 또는 아파트분양순위등을 조작했다는 정보를 입수、수사한결과 엉터리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준 동사무소직원 3명을 구속하고 3명을 수배했었다.

서울시경은 관할 江南경찰서에 전담반을두어 우선부정분양사례에대한 집중수사를펴기로 하는한편 앞으로 전매 임대등에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키로했다.

또 서울市는 최초 분양자가 전매를 할수없도록 하기위해 앞으로는 동호수 추첨과 동시에 주민등록과 인감을 첨부、분양회사에 등록을 하도록 각회사에 권장키로 했다.

財務委 내일쯤正常

實名去來법안등을 심사할 금융관계법안심사小委구성문제를 둘러싸고 그동안 空轉을 거듭해온 국회財務委는 빠르면 오는8일 정상운영될것같다.

民韓黨의 林鍾基총무는 6일 『내주에는 財務委를 정상화시킬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와함께 8일 豫決委에서 實名制에관한 忠州발언의 眞意는 국무총리를 출석시켜 實名制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히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與野는 그동안 막후접촉을 통해 金融관계법심사小委를 구성、8개 금융관계법가운데 實名거래법안을 제외한 7개법안을 우선심의하는 방안과 금융관계법심사를 의사일정후반으로 늦춰 稅法심의를 선행시키는 방안등 하나를 택하는데 의견의 접근을 보인것으로 전해졌다.

크랜스톤議員 大統領후보로

美民主黨의원擧論

【워싱턴AP=聯】22명의 미상원민주당의원으로 구성된 한 자문위원회는 앨런·크랜스톤(民·캘리포니아)상원의원을 84년 미대통령선거민주당후보로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美"蘇"東西서 同時戰능력"

蘇"美軍事優位모색 不容"

와인버거國防·그리신政治局員 선언

【캔버라AP UPI=聯】아시아·태평양지역 5개국을 순방중인 와인버거미국방장관은 5일 소련이 東西양쪽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수있는 능력을 갖추고있다고 지적하고 전세계를 향한 소련 팽창주의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재래식군사력과 핵억지력의 증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와인버거장관은 싱가포르、타이、인도네시아방문에 이어 이날 4번째 방문국인 호주에 도착、호주정부지도자및 야당지도자들과 일련의 회담을 가진뒤 캔버라의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모스크바UPI·AP=聯】소련은 미국이 결코 군사적우위를 차지할수 없을것을 확신하기위해 미국과 군비지출경쟁을 벌여 대응조치를 취할것이라고 蘇정치국원이자 모스크바市당지도자인 빅토르·그리신이 5일 선언했다.

그리신은 이날 공산당서기장 브레즈네프、국방상 드미트리·우스티노프、외상 안드레이·그로미코등 당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크렘린궁에서 개최된 볼셰비키혁명65주년기념 축하집회연설에서 『소련은 어느 누구도 군사적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신의 이같은 연설은 오는7일의 볼셰비키혁명65주년과 관련하여 나온 소련의 가장 중요한 정책선언인 것으로 간주되고있다.

社告

食生活개선 순회講演會

大邱9일 釜山15일 시민회관에서 全州23일 水原26일 光州12월14일

한국일보·일간스포츠가 벌이고있는 汎國民食生活改善캠페인의 일환으로 6일부터 市道別 지방순회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면서 오래도록 살고 싶어합니다. 그러기위해 모든사람들은 長壽하기위한 수단으로 각종 건강식품을 찾아 먹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만 하는 음식、즉 우리들의 식생활을 과학적으로 개선해야 되는것입니다. 우리주변에는 쌀 이외에도 값이싸면서도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두루갖춘 각종 식량식품이 많이 있읍니다. 본사에서는 도시순회강연회를 실시함으로써 식생활을개선해야만 건강長壽할 수있고、우리의 식단개선으로 영양관리를 과학화할 수있는 궁금증을 풀어드리게 될 것입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바랍니다.

●강사및강연제목▲劉太鍾(高大교수) 食生活과 長壽法 ▲李英男(慶熙大教授·大韓營養士會會長) 食生活 改善과 營養管理

※參加者전원에게 한국일보社 發行「건강하게 삽시다」(冊子) 무료배부·무료입장

◇「건강하게 삽시다」책 무료배부

◇全國 地方巡廻강연회 日程

大邱	11월9일(火) 하오2시~4시	시민회관
釜山	11월15일(月) 하오2시~4시	시민회관
大田	11월16일(火) 하오2시~4시	시민회관
全州	11월23일(火) 하오2시~4시	예술문화회관
水原	11월26일(金) 하오1시~3시	농협조합회의실
光州	12월14일(火) 하오2시~4시	시민회관

한국일보社

◇全대통령이 龍仁군外四面의 秋穀수매현장을 둘러보고있다.

雜木대신 草地조성 과감히

秋穀수매等級 公正도 지시

全대통령、育林날에

全斗煥대통령은 6일 『앞으로 雜木등 경제성이없는나무는 과감히 잘라버리고 대신 草地를 조성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山主가 草地조성을위해 잡목벌채를 신청할 경우 조속한 시일안에 허가를 내주고 지원을 해주도록 하라』고 孫宗鎬산림청장에게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育林의날을 맞아 京畿道安城郡三竹面美獐里에서 현지 주민들과 함께 나무에 비료를 준뒤 농촌후계자등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같이 지시하고 『초지조성을 위해 산림청에서도 지도를 펴나가도록 하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귀로에 龍仁郡外四面 白岩단위농협창고에서 실시되고있는 秋穀收買현장을 예고없이 찾아 李在天군수로부터 추곡수매현황을 보고 받고 『농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等級을 공정하게 사정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全대통령의 育林의날 행사참석과 추곡수매현장 시찰에는 盧泰愚내무장관、廉普鉉京畿道지사가 수행했다.

独立紀念館건립 誠金

우리의 작은精誠… 큰뜻 이루게

<6일접수>

▲(株)國都대표이사 鄭鍾珪씨外 任職員一同=1백11만6천원
▲美麗觀光(株)대표이사 黃來性씨外 임직원 一同=35만9천5백원
▲(종단)大巡眞理會天安市 성황동지구 대표백인순씨外道人一同=11만3천원
▲(종단)大巡眞理會忠南아산군온양지구 대표최숙진씨外 道人一同=13만1천원
▲(종단)大巡眞理會 서울영등포동지구대표 조남호씨外道人一同=12만7천원
▲(종단)大巡眞理會 서울공덕동지구 대표박희경씨外道人一同=10만1천원
▲금호건설(株) 사우디큐라이야트병원현장 M·H공무기능직 사원55명=사우디貨8백95리얄
▲韓國林政研究會 任職員一同=12만원
▲信成유리工業(株) 임직원一同=10만5천원
▲江南區瑞草2洞63통주민一同=10만2천원 【양재보급소접수】
▲江南區瑞草2洞61통주민一同=5만2천5백원

접수電話 722-4171

(株)國都 鄭鍾珪대표 外 1백11만원
美麗觀光(株)일동 35만원
금호건설(사우디병원기능직사원) 8백95리얄
韓國林政研究會 12만원
信成유리工業(株) 10만원

◇鄭鍾珪씨

地平線

文明의 진보는 지체부자유자들의 수를 더늘게 한다. 교통사고에의한 장애자수도 自動車文明의 발달에 따라 날로 증가되는것이 세계적 추세다. 醫學의발달로 과거라면 생명을 잃을 병상자도 心身에 장애를받으면서 살아남아 지체부자유자가된 경우도 있다. 이들을 보호하여 사회主流에로 통합시키는일이 先後進國을 막론하고 중요한 한 문제로 되어있다. ▼지체부자유아를 얼마만큼 밝게 기르고 사회主流에로 받아들이느냐 하는환경을 만드느냐가 先進國과 後進國을 가르는 한 척도로 되는것같다. 에드워드·케네디 美상원의원의 장남 에드워드2世는 한10년전 오른쪽다리에 번져가는 골수암으로 무릎위부분에서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지 않을수 없었다. 이제는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한 에드워드2세가 한 미국TV의 청소년對談프로그램에 나온 모습을 미국에서 우연히 본일이있다. ▼그가 의젓하게 무대로 걸어나올때 별로 다리를 절룩거리지 않아 TV사회자로부터 그의이름이 채차 소개될때까지 나는 그가 다른 청년이 아닌가 고착각할 정도였다. 그만큼 義足이 잘 되어있는 모양이다. 보다도 그의 표정이 밝고 명랑한데 놀랐다. 물론 名門가정의 힘이 그 밝은 표정의 바닥에 도사리고 있겠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것 같았다. 지체부자유아를 밝게 육성하는 미국사회의 환경풍토를 빠뜨려서는 안될듯 하다. ▼캐더린·번즈라는 여학생은 80년 여름 사우드 캐롤라이나州의 콘버즈대학에서 여름特講을 받으려고했다. 그러나 일반교실에서 교수의 말을 들을수없어 번즈양은 「手話」의 통역이 그녀를 도와줄것을 학교측에 요구했다. 한데 학교측은 단한사람의 벙어리학생을 위해 그렇게까지 배려할수없다는 이유로 번즈양의 요구를 거절했다. 번즈양은 『이는 장애자에게 교육의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일이 못된다』고 학교측을 告訴했다. 사우드 캐롤라이나州法院은 번즈양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녀의 등록금은 70달러였고、학교측은 手話통역비 만으로 7백50달러를 치러야 했다. ▼한국소아마비협회가 지난해 5월1일부터 1년간 전국초중고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체부자유 학생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부자유학생수는 무려 3만1백20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30%는 진학을 포기했다고 한다. 번즈양의 特權이 우리지체부자유학생들에게도 부여되는날이 멀지않기를 바라고 싶다. 근래 자주 들리는 그들에 대한 일부측의 차별조치 또한 말끔히 가셔졌으면 한다.

한국일보 우리의建設은建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거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낙엽이 지고 스산한 가을이 스쳐가고 있읍니다. 못다한 일들이 쌓여지고, 우울과 권태만이 낙엽처럼 딩구는데 아늑하고 감미로운 멜로디가 흐르는 "그라나다"에서 가을을 음미하세요.
산뜻한 왜식과 깔끔한 한식이 여러분의 구미를 돋구어 줄 것입니다.
부디 오셔서 따뜻한 "정종"에 "오뎅", "사시미","스시", 덴뿌라, 쓰끼야끼, 생선구이등과 여러가지 한식으로 건강을 돌보세요.

·고급레스토랑
그라나다
영업시간
오전 8시~새벽 1시
토요일 : 12시~새벽 1시
※일요일은 문닫습니다.
파킹장 오후 8시 이후 무료
※피로연, 회갑, 동창회, 각종모임, 계
예약 환영
923-3060
920 Yonge St.

宇宙왕복선 商業시대개막

콜럼비아號 11일 첫 實用비행

資源탐사·製品加工 생산도

【워싱턴AP=聯】 제임즈·베그즈美항공우주국(NASA) 국장은 5일 내주중 실시될 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의 첫 實用비행은 왕복우주선의 상업시대를 여는 신기원으로서 연간 수십억달러의 돈벌이를 약속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베그즈국장은 이날 전국기자클럽에서 연설을통해「상업통신위성 2개를싣게될 이번 콜럼비아호의 비행은 우주왕복선을 이제까지의 시험비행으로부터 사람들과 위성과학기재 과학실험실등을 실어나르게될 실용비행으로 전환시키는 출발점이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콜럼비아호는 美國의 새털라이트·비즈니스·시스템즈社와 텔레사트社의 인공위성 2개를 우주에 배치시키는 임무를띠고 케이프·카내베랄기지로부터 오는11일 5일간의 우주여행에 들어간다. 이들 회사는 콜럼비아호의 첫 상업고객으로 각각 1천만달러를 NASA에 지불하게 돼있다.

베그즈국장은 앞으로 몇년동안은 통신위성들이 콜럼비아의 주요화물이 될것이나 우주산업이 다른분야를 위한 수송도구 급증될것이라고 밝히고 여기엔 무중력상태의 우주에서의 가공및 약품생산, 정밀기기를 이용한 광물등 천연자원 탐사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베그즈국장은 우주왕복선 비행회수를 금세기말까지 연간 55회정도로 계획하고있다고 밝혔다.

4차에 걸친 시험비행끝에 실시되는 이번 첫 상업비행엔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왕복선에서 발사하는 일을 맡을 전문가2명을 포함, 모두 4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게된다.

葉劍英, 權力핵심固守

鄧小平의축출극 실패

【臺北AP=聯】 중공의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 상무위원회위원장인 葉劍英(85)은 그를 권좌로부터 축출하려는 당군사위주석이자 實權者인 鄧小平의 시도에도 불구, 죽을때까지 집권층핵심에 남아있을것임을 다짐했다고 대만의 한정보보고가 5일 전했다.

이보고는 북경의 한고위당간부의 말을 인용, 鄧小平과 그의 추종자들이 지난9월에 열린 제12기당전국대표대회(12全大會)에서 葉劍英을 신설된 당중앙자문위원회위원으로 이동시키려했다고 말한것으로 대북의 영자지 차이나·뉴스紙가 보도했다.

葉劍英은 12全大會에 참석한 廣東省대표들에게『黨의 혁명과업을 위해 마지막까지 일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이보고는 전했다.

廢止된保衛法 보완性格

—국회에 제출된 資源관리 法案

地域·부문별主務장관이 發動

「必要時」표현, 國會불씨 가능성

해설 정부가 5일 국회에 낸 資源관리 법안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資源」운영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8851호)의 미비점을 보완, 법률로 格上시켜 체계화하기위한 것이다.

「현행「자원운영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條(국가動員令)에 근거를 두고있다.

그러나 국가보위에관한 특별조치법이 작년 정기국회에서 與野합의로 폐지돼 이규정의 근거가 없어지게됨에따라 새로운 補完立法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당시 국회는 국가보위에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하는방안을 통과시키면서 경과규정으로 비상사태하에서 대통령이 국가動員令을 발동할수 있게한 국가보위特措法 제5條는 補完立法마련을위해 82년12월31일까지 그효력을 지속하도록 했었다.

따라서 이번「資源관리법안」은 이경과규정에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볼수있다.

그러나 이법안은 지금까지의「규정」을 法令化하면서 새로운 立法체계를 갖추고있어 관심을 모으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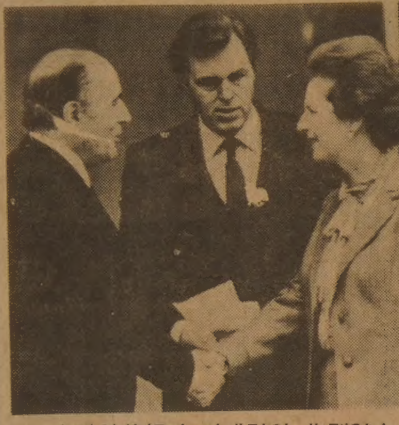
이법안은 한마디로 법안제1條에서 밝혔듯이 국가가필요시에 人的, 物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수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수립, 자원조사및 훈련등에 관해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지금까지의「자원운영등에관한 규정」과 다른점으로 우선「動員」이라는 용어 대신「資源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있는점을 들수있다. 또 지금까지의 규정이 대상연령을 17~50세 이상으로 하고있는데 비해 이법안은 20~50세(예술인과 특수기술면허자는 60세)로 정하고있으며 대통령선거인단선거나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등 선거시에는 훈련을 할수없게하고 있는점, 그리고 벌칙조항에서 훈련에참가하고있는 자가 관계공무원의 직무상의지시에 따르지않는 경우「규정」은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있으나 이법안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이하의벌금으로 조정한것등도 다른점이라고 할수있다.

「자원조사」에 있어서 자원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長은 관계기관의 長의 요청에의해 合同조사를 할수있게 규정하고있고 비상시에 대비, 정부는 필요한 物資를 비축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둔것도 지금까지의규정과 다른것이다.

또 훈련대상자에서 상이군경과 폐질자는물론 국회의원및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자는 훈련을보류할수있게한것, 그리고 지금까지의 규정에서 人力동원훈련은 내무장관이, 物資동원훈련은 관계主務장관이 훈련을 명령할수있던것을 지역별, 부문별로 主務장관이 포괄적으로 훈련을 발동할수 있도록 한것이 특징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이같은법체제의 상이점과는달리 종래의 규정이「비상사태하에서 국방상의 목적을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목적을 분명히 한데 비해 이법안은「장래에 있어서의 필요시」라고 막연한 표현을 쓰고있어 국회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것으로보인다. 이미 이법안이 국회에제출되자 野黨측에서는 違憲문제를내걸어 이법안에대한 시비를 따지고있다. 이 법안이 지금까지의 규정을 法令化한것에 불과하지만 경우에따라서는 이번국회에서 새로운문제의 불씨가될 우려도 없지않을것같다. 【河長春기자】



◇대처首相과 미테랑의 作別악수

프랑스를 방문중인 마거리트·대처 英國수상이 5일 英佛정상회담을 마친후 엘리제궁을 떠나면서 프랑스와·미테랑 프랑스대통령과악수하고 있다.【파리AP聯=聯】

波自由勞組 총파업

地下운동자, 오는10일 斷行촉구

【바르샤바AP聯=聯】 불법화된 폴란드의 자유노조지하활동가들은 자유노조활동 2주년을 맞는 오는10일 8시간동안의 전국파업을 단행하도록 촉구했다.

즈비그니에프·부야크등 자유노조의 저명한 지하운동가 3명은 4일 회람된 주간지하신문에 발표한글에서 당국이 노조의 자유화, 경제제도의 대폭적인 개혁, 지방선거와 의회선거의 자유선거제전환문제등에 대해 타협적인해결책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기 위해서는 파업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부야크는 또다른 성명을통해 내년봄에 예정된 총파업은 최소한 수일동안 계속되어야한다고 말하고 총파업은 구금된 자유노조 지도자들의 석방과 계엄위반자들에 대한 사면에 목표를 두어야한다고 말했다.

東南亞 군사력變化

越南발판 蘇軍증강

【클라크美공군기지(필리핀)UPI=聯】 공산베트남을 발판으로한 소련의 군사력증강으로 동남아지역에서의 군사력 판도가 크게 변화하고있으며 이에따라 이지역에서의 미국의 전략적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클라크美공군기지 제13공군사령관인 케네드·번즈소장이 5일 말했다.

번즈사령관은 이날 소련이 베트남의 캄란만일대를 비롯한 주요지역에 전략적요새를 구축함에따라 소련의 극동함대가 소련최대의함대로 급격히 부상하고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베트남이 공산화되기전 미군기지로 사용됐던 캄란만은 태평양과 인도양해상에서 활동하는 소련해·공군의 주요전략거점이 되고있다고 말했다.

埃대통령 첫日방문

【東京AP=聯】 호스니·무바라크 이집트대통령은 이집트國家원수로서는 처음으로 내년3월 일본을 방문할것같다고 마이니찌(每日)신문이 정부소식통을 인용, 6일 보도했다.

마이니찌신문은 무바라크 대통령이 내년3월7일 뉴델리에서 개최될 非동맹회담에 참석한후 일본에 들를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日本정부는 무바라크대통령이 故사다트대통령의 암살에 이어 대통령직에 취임한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을 방문해주도록 요청해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前駐韓泰國대사 部下갈독 소홀解任

【방콕UPI=聯】 아사·분야프라테웅 前한국駐在 타이대사가 서울에서 근무할 당시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소홀히한 책임으로 대사직에서 해임됐다고 타이외무성소식통들이 5일 밝혔다.

타이외무성은 이날 발표를 통해 아사前駐韓대사가 서울에 재임할당시 금년초에 발생한 한 부하직원의 1백60만바트(69만5천달러) 공금횡령사건과 관련, 감독을 소홀히한 책임으로 대사직에서 해임됐다고 밝히고『그러나 아사前대사에대한 연금은 지급될것』이라고 말했다.

日 試運轉성공 꿈의 超特急 열차

【東京UPI=聯】 日本國鐵(JNR)은 5일 日本남부 미야자끼(宮崎)실험소에서 최고 시속5백㎞이상으로 달릴수있는 超高速전철『꿈의 超特急列車』의 시험운행에 성공함으로써 실용단계에 한발 접근했다고 JNR연구팀이 말했다.

브래디 白堊館복귀 勤務하며 通院치료

【워싱턴AP=聯】 지난해3월 레이건 미대통령 암살미수사건 당시 중상을 입었던 제임즈·S·브래디 백악관 수석공보비서(대변인)가 사건발생후 처음으로 5일 백악관 사무실로 복귀했다.

백악관은 브래디 대변인이 앞으로 1주일에 몇시간씩을 백악관에서 근무하면서 완전회복에 필요한 통원치료를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래디 대변인은 대기중이던 기자들과 농담을 주고 받으면서 백악관본관 1층에있는 그의 사무실로 걸어들어갔다.

記者의 눈 — 投機막을 住宅政策

○…서울開浦지구에서의 아파트투기가 과열돼 방관할수없는 상태로치닫자 정부는 급기야 8일부터 세무조사에 나섰다.

開浦지구 아파트 투기에 대한 단속문제는 그동안 관계부처간에상당한異見이 있어온것으로 알려졌었다. 가차없이 단속을 해야한다는측은 무질서한 투기행위가 전체국민경제에 미치는 여러가지 폐단, 엄청난 不勞소득이 사행심을 조장시켜 건전한 근로사회풍토를 어지럽게 만들뿐이라는 사회정책적인 명분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단속을 서둘지말고 당분간 관망해보자던측은 부동산경기의 활성화가 오랜경기침체를 자극시켜줄수있는 點火기능을 할것으로 기대했던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이처럼 百害無益한 투기행위를 놓고서도당장 손을 쓰지못하고 그동안 소극적인자세를 취해오다가 뒤늦게 세무조사에나설수밖에 없었던것은 경기에대한 기대외에도 심각한 宅地및 주택부족난을 정부재정만으로는 해결할수가 없어 민간주택건설업계를 지원함으로써 함께 해결해 보자는데 목적이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기대·계산은 새삼스러운게아니며 과거에도 여러차례똑같은 상황을 경험한바 있다. 특히 부동산투기가 절정에 달했고 지난78, 79년에는 강력한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을 펴와 부동산경기자체를 완전히 짓눌러놓다시피했고 경기가 너무 사그러들었다싶자 올들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한각종 억제조치를 모두 풀어버려 이제는 투기에대한안전장치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되어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開浦지역의 과열투기를 다루게된 정부입장에 대해서는 많은 고충이 있을것이라는것은쉽게 짐작할수있는 일이다.

더구나 이번 아파트투기는 開浦등 일부지역에 국한된것일뿐더러 그파급영향은 압구정동, 서초동, 도곡동, 반포, 여의도동 소위 인기지역에만 확산되고있으며 아파트외에 주택청약통장에까지 불이붙어 한꺼번에 대책을 세우기가 어렵게돼있다.

그러나 이처럼 어렵게된 상황을 따져보면 근본적인 정부의 주택정책에 귀결된다. 같은 서울지역에 다져놓고서 팔리지 않는 아파트가 1천9백여세대나 되는데도 開浦지역의 아파트에만 투기가 몰린다는것은 누가봐도 가격정책이 잘못된것이나 대책이 없다. 아파트분양가격자율화뿐아니라 부동산소개업자의 자격제, 주택청약예금제도의 개선등 많은 대책이 거론되기만했을뿐 투기를 예방할수있는 확실한 주택정책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8일부터 세무조사에 나섰다지만 과거의 경험으로보아 일시적인 투기억제효과만 나타날뿐 근본적인원인은 그대로 남는셈이다. 아파트, 부동산에대한 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주택·토지정책을수단으로하여 투기대상이 안되도록유도 해야하며 그이외의방법을 동원해보았자 과거의경험만 되풀이된다는것을 알아야겠다. 【俞曉錫기자】

內外動靜

◀民正黨의 당직자와 소속의원및 사무국요원 2백여명은 育林의날인 6일하오 京畿道坡州郡條里面鑿造里야산에서 약5천그루의 나무를 돌봤다.

社說

愼重審議와 民意收斂

—資源管理法案에 대한 우리의所見

국민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게한 가운데 국회의 審議과정에서 상당한 논의가 거듭될것으로 보이는「資源管理法案」이 5일 정부에 의하여 제출되었다. 중대한 法案일수록 슬기롭고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것으로 우선 생각된다.

이 法案의 목적은「장래에 있어서의 필요시」에「국가의 人的·物的資源 기타 국가資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데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정부가 管理할 物的資源중에는 민간企業體와 文化機關및 의료시설등도 포함된다. 또 그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가 가능하고 그중「動員管理對象」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시설의 보강과 물자의 비축을 명할수 있게되었다. 人的管理對象의 경우는 1년에 15일을 넘지않는 기간 훈련을 실시할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 이러한 내용은 그다지 생소하거나「新奇」한것은 아니다. 정부는 그동안「國家保衛에 관한 특별조치法」제5조에 근거를둔 大統領令·「資源運營등에관한 規程」을 통해 行政指導를 해왔었다. 그러다가 保衛法이 작년정기국회에서 與野합의로 폐지될때 이미 예견했던 補完立法을 이번에마련한셈이라고 풀이되는바이다. 다른한편 戰時나 事變 그리고 이에준하는 비상사태에 즈음해서는 憲法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대한「잠정적 정지」를 예견하고있는 터이다.

그러므로 냉정히 보아 資源管理法案을「違憲」이라고 단정할것은 아니고, 다만「필요시」라고 모호하게 표현되었거나 광범하게 해석될지 모르는 경우에 국민의基本權이 제한될수 있다는데 문제는 있다.

이러한 시비를 빚을 우려가 있는 條項은 일부公務員들의 恣意가 깃들지않게하는 방향에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것으로 믿는다. 또 그成案경위는「當然」하다고 논란할바아니지만 어딘지 개운찮은「당급」인상도없지않은데, 이는 法條文의추고미흡에서도 감지된다. 그렇더라도 우리나라의 客觀的環境이 비록 戰時는 아니라해도 해이가 용허되지않는 準戰時 또는 긴장상태에 놓여있다는 현실을 감안할적에「對備」의 意義를 간과해서도 안되리라고 믿는다.

물론 우리가 지켜야할 價値는 다름아닌 自由民主主義의 보람이다. 그리하여 국민의 自由와 基本權에대한 제한은 엄격히 필요최소한으로「잠정적」이어야한다. 따라서「필요시」등과같은 廣義의 모호한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 管理對象의 지정도 너무 포괄적이고, 많은 의무의 부과도 재고될바이고, 국민의 신체적 자유와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의發動要件또한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行政便宜주의의 남용 가능성은 미리 배제되어야 할것이다. 自由市場經濟體制의 본질을 위축시켜서도 안될 일이다.

작년에 國家保衛法을 폐지한 경위가 상기되려니와, 지금이 과연 그 代替 또는 補完立法의 適期인지도 깊이 헤아렸으면 좋겠다. 국회사정은 차치하고 국민에게 주는 일말의 불안감과 波及效果 내지 對外印象등을 감안해야 하겠기 때문이다.

이번과 같은 立法作業 추진에 있어서는 특히 事前에 輿論을 경청하는 여과作業이 필요했으리라고 생각된다. 일부 誤解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그렇거니와 국민和合에의 기여를 慎慮해야 하겠기에 말이다.

정부는 資源管理法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도 그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豫算案에 별달리 책정해 두게 없다. 부담감없는 국회審議를 내다볼수 있겠으며 애당초「強行通過」의 他意가 없음이 추정되는 바이다. 그럴수록조용하고 신중한 국회審議가 가능할것으로 기대된다. 지나치게 졸속적으로 받아들일것 없이 국민의 여론과 국가의 수요를 고루 감안하는 民主的良識의 適正線을 내다보면서 국회의 存在意義를 입증해주기 바란다.

큰慘事 부르는 都市가스

—기술·裝備개선과 守則강화 있어야

도시생활엔 구조적인 사고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 얼핏 생각에 각종 사고는 偶發的인것 같지만, 그 속사정을 따져보면 결코「우연」이 아닌「必然」의 이유가 발견된다. 대부분의 경우 안전에 대한 무감각·무신경 때문이다.

5일하오 서울아현동 도시가스사고는 異狀이 알려진데도 수리에 늑장을 부리다 터졌다. 누출로 일어난 대형폭발 참사는 등골이 오싹하면서도 한편으론 어처구니가 없다. 가스는 폭탄과마찬가지다. 잘못 취급하면 걷잡을수 없게 터지게 마련이며 그 피해 또한 엄청나다. 이 뻔한 사실은 누구라도 알고있는 상식이다. 사고는 거의가 상식을 저버린 人禍다.

허술한 기술·장비를 갖고 수리를하고 게다가「안전守則」은 대부분 잊었거나 외면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난다. 도시가스 누출에따라 밸브교환공사를 하면서 예상되는 폭발·中毒을 막을 안전대책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무서운 참화를 自招한 셈이다.

도시가스의 공급률은 날로 늘어간다. 편리하며 안전하다는 利點때문이다. 그러나 도시가스라고 저절로 안전한것은 아니다. 취급과 사용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 안전이 보장된다. 프로판 가스의 위험에 비해 덜하다는것 뿐이지 폭발과 중독의 위험은 몸서리가 날만큼 무서워라.

그래서 도시가스를 다룰때 전문기술자의 손이 요구된다. 우리가 빠뜨려선 안되는 점은 왜 전문업자마저 이렇게 느슨했는가 하는 점이다. 가령 不發事故에 무방비했는가 하는 것을 묻는것이다. 그렇다. 가스 제거를위해 마구 절단할 수는 없다는 노릇이다. 전문적인 기술로도「不意」에 대처하는 안전대책으로 무장해야 기능이 완벽하게 발휘된다.

구조작업도 그렇다. 무작정 섣부르게 달려든다고 수습이 되는것은 아닐 줄 안다. 위기를 구하려면 용기와 함께 더 이상의 피해를 미리 막는 신중한 현장접근이 있었다면 참화를 줄일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밝혀둬야 할것은 防毒마스크를 쓴채 경찰관이 숨진 이유다. 소방관이 사용하는 산소마스크를 썼어야 했다.

도시가스의 보급과 사용은 앞으로 더 늘어날것이다. 가정연료의 가스化계획에 따라 내년엔 전국 10개도시로 공급이 확산된다. 서울시도 지금 8·8%의 공급률을 내년에 13.7%, 90년엔 40%까지 확대해 간다고 한다. 취사용뿐 아니라 난방용으로까지 쓰여질 계획도 세워졌다. 그런데 서울은 복잡한 도시 구조탓으로 배관공사에 어려움이 크다. 그만큼 위험부담이 많다는 이야기다.

그러니 도시가스 사용으로 편리함을 기대하려면 무엇보다 안전시설과 수칙을 더욱 강화하고 철저한 준수가 앞서야 한다. 무조건 공급과 편리만을 내세울 일이 아니라 본다.

사고의 책임은 우선 당국과 업자에게 있다. 안전관리엔 放心이나 虛點이 용납될수 없다. 사용자와 일반가정에도 취급방법과 대책을 熟知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비단 도시가스만이 아니고 우리생활주변에 널려 있는 모든 不安요인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총점검해 보기를 바란다.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지하음식점 참사나 얼마전 주택가 뇌관공장폭발사고의 교훈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이런 참사가 또 일어났다는 것은 안전에 관한 감각이 무디다는 한 증거다.

사고현장에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든 순직경찰관의 책임감을 우리는 높이 받들고 싶다. 天災도 人災도 인간의 슬기와 용기로 극복될수 있다. 사고예방은 남에게 미룰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주변부터 살피고 재난의 꼬투리를 단단히 잡아둬야 한다. 생활의 利器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그혜택을 옳게 받을수 있다. 비슷한 참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政局往來

野"違憲論"에 與"당연한 法인데 官僚的타성으로 誤解소지남겨"

◆10년뒤엔 가뭄걱정않게 대책마련

全斗煥대통령은「育林의날」인 6일낮 京畿道安城郡三竹面美章里에있는 篤林家 李哲淳씨(69)소유 林野에서 1년생잣나무등에 施肥를한뒤 李씨 자택에서 농촌후계자등과 오찬을나누며 농촌발전문제등에 관해 환담.

全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농촌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야 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농촌지도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뒤『10년뒤에는 농번기에 비가 안오더라도 가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농사를 잘 지을수 있도록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이어 귀로에 龍仁郡 秋穀수매현장에 들러 추곡의 等級査定과 수매절차등에 관해 자세히 물으면서 농민들에게『수고가 많았다』고 인사.

3천가마를 수매키로 돼있는 이날 수매현장에는 많은 농민들로 붐볐는데, 이들 농민들은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대부분 어리둥절한 표정들.

◆문잠근채 密談으로 注目끌어

資源관리法案이 갑자기 국회에제출되어 야당측의 반발에 부딪치고 實名制를 둘러싼 與野의 대립분위기가 팽팽한 가운데 6일 상오 民正黨舍에서는 金竣成부총장, 權翊鉉사무총장, 李鍾贊총무등이 문을 걸어 잠근채 密談을 나누어 注目.

이날 密談은 鄭在哲국회예결위원장과 金琫泰대변인등 同席할만한黨內 간부들까지도 밖에 기다리게하면서 진행되다가 당사부근의 음식집으로 자리를 옮겨 오찬을 나누며 얘기를 계속했다.

이자리에서는 자원관리법과 實名制의 처리에관한 정부·與黨의 공동보조등이 논의된것으로 알려졌는데 權총장은『실명제의 實字도 안나왔다』고 딴청.

◆늑장제출에 쓸데없는 誤解초래

民正黨의원들은 與野의 實名制是非가 차츰 가라앉는가운데 정부가 갑자기 제출한 자원관리법안이 새로운 爭點으로 등장한 조짐이 보이자『정부의 무성의 졸속으로 공연히 말썽의불씨를 일으켰다』고 못마땅한 표정.

이들은『모든 법안은 사전에 충분한 사전심사를위해 일찌 제출하라고 그렇게 독촉했는데도 정부가 지키지않더니 결국 이런 실수를했다』면서『특히 경과조치에따라 금년말까지는 이관계 새법안을 마련해야하는데도 이처럼 불쑥내민것은 일부관료들의 타성을 그대로 드러낸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특히『세계 어느나라도 비상시에대비, 국가동원法令을 갖고있다』면서『우리의경우 당연한 법안인데도 늑장제출과 목적不明記등으로 쓸데없는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고 말하기도.

◆절차상의 문제부터 誤解풀어야

民韓黨간부들은 자원관리법안에 대해「문제가있는 많은 법안」이라면서 反對論.

林鍾基총무는 6일『지난 71년의 保衛法 파동을 연상시키는 만만찮은 법안』이라고 진단하면서『이미 5일의 국회예결위에서 違憲論을공식적으로 제기한이상 이제부터는보다 구체적인 후속대응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정책심의회의 金鉉圭 의장은『국민의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확연하다』고했고 李輿鎔 부의장은특히 法理上의 다툼은 차치하고라도 이렇듯 주요법안을 사전통고없이 느닷없이 제출한점이라든가 국회 운영위 소관 법안을 국방위로 넘긴점등 석연찮은 절차상의 문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

◆유령을 부활시키는 行政便의發想

資源管理法案의 처리대책을 논의하기위해 6일상오 국회총재실에서 열린 국민당의 총재단및 당직자회의는 이법안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續出.

이날회의에서 趙一濟정책위의장과 金永生정책연구실장은『維新잔재의 강압적인 표본법률이라고「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3黨3役회의의합의로 폐지해놓고 다시 같은맥락의 법안을 내놓은것은 유령을 부활시키려는의도로 행정편의주의의 발상』이라고 비난.

李東鎭총무도『이법안은 납득할수없는 내용들로서 이번국회에서통과되지않도록 하겠다』며『5일저녁에 있었던 3黨총무들의 會食자리에서도 이문제를 정식거론, 이법안의 再考를 李鍾贊民正총무에게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李萬燮부총재는『정부는 국민을 편안하게해야 한다』면서『정책을 세울때는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할줄아는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한다』고 一針을 놓기도.

"WE'LL TRADE YOU PROFIT FOR SPACE"

"소매업을 위한 또 하나 전통의 도매상이 여기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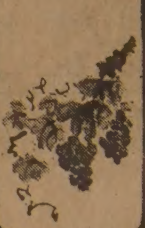
품목

- ○모든 장난감종류
- ○각종 문방구
- ○재봉에 관한 종류
- ○하드웨어 종류
- ○스타킹 종류
- ○Pet Supplies
- ○Baby Products(어린이용 기구)
- ○전기기구 종류(전기코드, 밧데리)
- ○고무제품
- ○Hair Care
- ○집기종류(House Ware)
- ○알미늄, Foil종류
- ○Glass Ware
- ○Cleaning Aid

GOODWIIL SALES LTD. 88 STREGIS CRES SO., DOWNSVIEW (킬과 세퍼드북쪽)

☎ 630-5401 ※주문 환영 ※철저한 신용

아침 한때



막힌데를 뚫고 있는가

떠들석한 壇上壇下…和合의 슬기를

金源一 〈작가〉

언제부터인지 나는 신문을 거꾸로 읽는 버릇을 갖고 있다. 신문사에서 정해준 1면 2면의 질서를 무시한 채 뒷면부터 읽어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신문 면수로 따지면 12면부터 읽는 셈이다.

대부분의 신문은 12면에 연예란을 싣고 있는데 내가 각별히 연예기사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신문이 증면되기전 즉 8면으로 나올 때는 대개 맨 뒤에 스포츠를 실었는데 그때 스포츠부터 읽었던 기억이 난다.

어느 女長官의 落淚

신문을 거꾸로 읽는 것은 확정한 기사만을 좋아해서가 아니다. 그동안 1면이나 정치기사 중에는 나같은 서민에게는 너무도 생경하고 복잡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문이 오면 1면의 골치 아픈 활자를 슬쩍 곁눈으로 훑어본 다음 뒷면서부터 읽는 버릇이 생겼다.

그러나 나는 요즘 신문을 거꾸로 읽는 오랜 버릇이 없어졌다. 어느 女長官이 국회의원을 향해 큰 절을 하는가하면 답변중에 그만 落淚하고있는 사진이 크게 실린날 1면부터 읽었다.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이 장관의 울음이 어째서 그처럼 흥미를 끌었을까? 그것은 이기사가 그동안 신문정치면에서 좀처럼 볼수없는 「인간적인」분위기를 풍겨서였는지 모른다.

많은 서민들이 나처럼 1면과 정치기사에 별관심을 갖지않는것을 자주본다. 확실히 내 주변 사람들의 정치에대한 관심은 예전에비해 부쩍 줄어든것같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겠지만 대중의 의식수준이 보다 성숙해졌달까 아니면 현실적이 됐기때문으로 볼수 있으리라.

無關心서 關心으로

광복직후처럼 政黨이 하룻밤사이에 수십개씩 생겨나고 글줄이나 배웠다는 사람들이 누구나 愛國愛族을 외치던 시절은 어찌보면 정치의 幼兒期的 현상으로 볼수있다. 학자건 의사건 사업가건 언론인이건 모두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회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治者가 국민의 衣食住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 대중은 정치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오순해져 길들여진 양같이 믿고 따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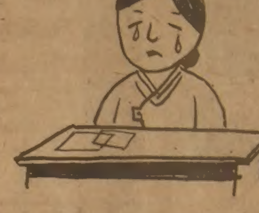
근년의 정치는 표면상 무풍지대였다. 정치를 바라본는 국민의 시선이 무관심했던것이 사실이다. 사람들은 시끄러워봐야 별로 이익이없고 오히려수출도 장사도 안된다는 생각에서지 정부에 모든것을 위임하듯 살아가고있다.

그래서 모이면 과거처럼 정치이야기를 하기보다는 88올림픽이야기나 프로야구에서 누가 홈런을 많이쳤는가로 열을 올리고있다. 심각한 이야기라면 고작 李哲熙·張玲子부부가 주무른 천문학적숫자의 돈이 자기들의 몇백년봉급이라고 떠들며 술잔을 비우는 정도였다.

이런 정치무관심현상은 정치인들에게까지 파급되었는지 여름동안 국민들은 의원들을「애나보고 있을까」하고 생각하기도 했고, 국회가 열려봐야 헤비급의 여당과 플라이급의 선수가 링에 올라 벌인 권투시합같아 그관전이 싱거울거라고 지레 짐작을 하기도했다.

그러나 지난10월5일 각정당의 대표연설을 시발로 對政府질문에 들어가자 問題發言이건 人氣發言이건 재미있는 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고보니 새삼 정치란 너무 조용해도 좋지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조용해도 問題



야당측의 발언에 집권당이 신경을 곤두세우기는했지만 과거처럼 단상을 점령하거나 의원끼리 멱살을 잡는 추태를 보이지않은것도 다행이었다. 그것이 야당의원들의 무기력때문인지 아니면 和合의 정치풍토때문인지는 정치의 문외한인필자가 알수없는일이다.

그러나 지난날 그숱한 단상에서의추태가 국가적으로는 물론이고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던이상 짜증나고 역겨운장면이 사라진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었다.

질의에 답하던 여장관이 울음을 터뜨린 장면은연예인들에관한 가십기사적인 친근감이 잖고 나같은서민과는 인연이 없는듯하여 관심밖이던 實名制를두고 장기간 대화가 계속된것도 지난날의 일방통행식의정책결정에비해 공감을 주었다. GNP의60%이상을몇몇 재벌이 독점하고있다는 발언에서는 한국경제의구조적모순을 한눈에 보는듯했다. 따라서 이 문제만은 「대책을 강구중이다」는 상투적인 대답으로 끝날일이아니라 명확한 귀추를 알려야할것이다.

過去 집착에 긴장이

이번 전기국회의 하이라이트는 전남대부속병원에서 사망한 朴寬賢씨의 사인을 둘러싼 풍문을 확인했을때였다. 金총리가 시정연설에서 정치는「막힌데를 뚫는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에 공감을 느낀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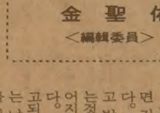
이문제가 유언비어의 세계에서 국회의 토의로 옮겨가고 그 토의결과가 신문에 보도된만큼 우리사회의 막힌것은 뚫린셈이다.

그러고보면 망각과 순응과 체념이 만연하는 사회는 발전이 없고 무기력하게 마련이다. 또한 臥薪嘗膽의 교훈을 좇아 과거를 체념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는 한 그 사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도사리고 있게 마련이다. 민주주의란 개인 한사람이 자체 국가보다도 天下보다도 귀하고 값지며, 공산주의는 당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명제가 성립된다면 정부는 그 양쪽을 잘 다스리고 어루만져「막힌 데를 뚫고 굽은 데를 펴는」和合의 슬기를 보여야할 것이다.

메아리

짚과 총각

金聖佑 〈編輯委員〉



추수 끝난 金萬平野는 볏가리의 練兵場이다. 빈 들판에는 베어낸 볏단의 더미들이 즐비하다. 벼를 말리느라 논두렁가에 늘어놓은 것이 「주라리」요, 이 볏단들을 여러다발씩 쌓아놓은 것이「바라리」다. 이 바라리들이 아무렇게나 흩어져있지않고 논마다 가운데에 일렬로 정렬해있다. 넓은 평야위에 수없이 그려진 이 굵은 線들은 농민들의 美術이다. 수확의환희가 이 그림 속에 있다. 게다가 金萬평야는 올해 기록적인 대풍이었다.

이 들판을 바라보고있으면 볏가리와는 따로 띄엄띄엄 커다란 짚무더기들이 많이 눈에 띈다. 멀리서 보면 초가집이 엎어져 있는 것같기도 하다. 벼를 탈곡하고난 짚단을 집채처럼 쌓아놓은 것이다. 이것을 「짚벼늘」이라 부른다.

이 많은 짚벼늘은 가을평야의 새로운 造景物이다. 옛날에는 추수가 끝나면 짚단들은 금방 농가의 집안으로 들어간다. 들에 오랫동안 쌓여있을 틈이 없었다. 이 짚벼늘은 오늘날 우리의 農村像을 상징하는 것이다. 농촌의 생활과 살림면의 변화를 이 짚단의 무더기가 다 말해준다.

수년전까지만해도 짚은 농촌의 필수품이었다. 초가의 지붕에 올라가야하고 땔감으로 부엌 아궁이에 들어가야 하고 외양간의 바닥에도 깔려야했다. 지금은 달라졌다. 지붕을 일 초가는 없어지고 연료는 연탄으로 대치되고 소는 짚위에서 자지 않는다. 종전에 짚의 다른 큰 용도는 새끼를 꼬고 가마니를 치는것이었다.

요즘은 정미소에 가보면 가마니를 구경하기 어렵다. 모두 값이 더 싸고 묶기 편리한 마대를 쓴다. 가마니조차 치지도 않으니 짚이 집안으로 안들어오고 들판에 널려있다. 젊은 농가에서 처치곤란한 물건이 되었다.

짚은 논 한필지(1천2백평)에서 5백다발 나온다. 이 값이 옛날에는 쌀 두가마와 맞먹었다. 지금은 쌀 엿말값으로 떨어졌고 그나마 사간다는것이 고작 양송이 재배자나 다다미공장 정도다. 군청에서는 논에서 생긴 짚은 논으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이 짚을 생짚갈이에 쓰도록 농민들에게 권장한다. 생짚을 논에 거름으로 썩여넣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자는 짚을 그 논에 다 쓸면 너무 거름이 걸고, 또 콤바인기계로 추수를 하게되면 그 자리에서 짚을 썰어놓을수가 있지만 아직 이 기계가 보편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사람손으로 썰어야한다. 인력값이 드니 생짚갈이를 잘 안하려고 한다. 옛날에는 가마니가 농가의 큰부업이었다. 추수가 끝난뒤 농한기에 부부가 맞잡고 앉으면 하루 10장은 친다. 지금도 가마니한장에 5백50원은 받는다. 적잖은 벌이가 되는데도 가마니 치고 앉아있겠다는 사람이 잘 없다. 그만큼 생활이 나아졌다는 말이다. 金萬平野의 중심으로 全北 金堤郡은 가마니생산이 전국에서 최고라는 것이 지금까지 자랑이었다. 한때는 한해 2백만장까지 만들어냈다. 그러던 이 작년에는 40만장으로 줄고 금년에는 더 떨어질 전망이다.

농촌에 짚과 함께 또 한가지 남아도는 것은 총각이다.

金堤郡 竹山面 洪山里 內村부락에는 1백여가호가 사는데 25세이상의 총각이 20명가량이나 된다. 30세가 넘은 노총각도 여럿있다. 마을처녀들은 도시로 나간뒤 돌아오지 않는다. 총각들도 대개 중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번씩은 도시로 나갔다가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돌아온 사람들이다. 마을에 남아있는 처녀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시골농부의 아내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농촌의 생활개선이란는것이 따지고보면 거의 여자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다. 옛날 農婦들은 우물에서 물 길어오고 밤이젖고 양말과 버선을 기워신고하는것이 큰일이었다. 지금은 그일들이 없어지고 家電製品이 웬만한 집에 다 있다. 그런데도 아직 농촌에서 여자일은 고되다. 완전 機械營農이 먼 농촌에서는 남자보다 여자 일이 더 많다. 여고를 나와도 시골에 묻히면 금방 村婦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처녀들은 장사하는 사람이나 월급장이를 찾아나간다. 농촌의 총각들은 들판의 짚벼늘처럼 멍하니 서있다.

짚은 농촌이 잘 살아서 남고 총각은 농촌이 아직 충분히 잘살지 못해서 남는다. 【金堤에서】

급작 資源관리法案에 모두 어리둥절

정기國會 常委 後半활동 百態

—정기국회도 벌써 前半을 넘기고 후반으로 접어드는것 같군요.

그동안 각常委마다 정책질의와 계류법안 심의로 연일 야간 회의를 하는등 쉴틈없이 돌아간것 같아요.

—豫決委나 몇몇 常委의 소속의원들이나 취재진은 정말 연일 야간회의로 눈이 충혈되고 있어요. 피로한 기색들이에요. 2차常委의 전반부가 소관부처 현황에대한 정책질의 였다면 후반부는繫留법안에 대한 심사, 즉 질의·답변 시간이었지요.

—과거같으면 법안에 대한 질의는 관심을 끌지않고 수월하게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정부와 與野의 利害가 예리하게 엇갈리는 말썽많은 實名制법안을 포함하여 常委마다 大魚級의 법안이 심사대기중이어서 만만하게 넘어갈수가 없었지요.

—따라서 전반부의 對정부정책질의보다 후반부의 법안심의에 與野가 더 많은 力點과 비중을 두었어요.

—例를든다면 內務委의 地自制法 경찰공무원법 전투경찰대설치법개정안과 財務委의 實名制법, 은행법개정안과 각종稅法, 文公委의 언론기본법개정안, 農水産委의 農·水·畜協法개정안, 保社委의 醫保一元化문제, 건설위의 국토이용관리법개정안등은 모두 나름대로 문젯점과 논란의 소지를 안고있는 법안등이었지요.

—2차常委 전반부가 財務委를 중심으로 財閥整討의 함성이 의사당내를 가득채웠다면 후반부는 벽두부터 이들 법안에 대한 是非와 實名制 때문에 시끄러웠다고 할수있겠지요.

—文公委의 경우 實名制 때문에 民韓黨이 작년 12월 3일 제출한 언론기본법개정안을 자진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당시 民韓黨이 제출한 言基法개정안은 일부분에 字句가 잘못되어 改善이 아닌 改惡이될 우려가 있었고 民韓黨도 이를알고 제안설명과정에서 이부분을 보완했어요.

—그런데 民正黨은 그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다시 修正案을 내라고 은근히 엄포를 놓았으나 民韓黨은 그것으로 수정안이 될수있다고 서로 신경전을 벌여왔지요.

—그러다가 民正黨이 實名制연기를 결정했고 民韓黨은 民正黨에게 수정안을 따로제출해야한다고 주장했지요. 그러나 民正黨은 재무위 小委에수정 동의를 하면 되지않느냐고 절차문제로 맞서자 民韓黨은 先例를 보이려는듯 言基法개정안을 자진 철회해 다 서 다시 제출한거죠.

—實名制가 豫決委운영에도 초반에 暗雲을 드리웠지만 이문제는 여전히 국회운영의 核으로 남아있어요.

—民正黨의 속셈은 어차피 實名制실시를 연기토록 결정했으니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후 法에의해 실시를 연기하는것이나 법안심사가 지연되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實名制가 유보되는것이나 같은 효과를 내는것이라는 판단에서인지 그리성급하게 달려들지 않고있어요.

—여기에 民正黨은『우리는 재무위 小委를 구성하자고 하는데 民韓黨이 반대하여 實名法案을 심사하지 못하고있다』는 명분을 갖고 더욱 작전상 여유를 보이는것 같아요. 내심으로는 稅法심의등으로 속이타면서도….

—李東鎭국민당총무가 주선한 지난4일의 총무회담에서 實名制처리를위한 재무위 小委구성에 실마리가 잡혀지고 한때 재무위간사회의에서 여야가「합의했다」「아니다」라고 엇갈리는 소동을 벌이기도했지요.

—民正黨측에서는『기정成事됐다가 민한당집안 사정으로 釋放됐다』고 아쉬워하고 있지요.

—이제 實名制처리의 열쇠는 民韓黨측으로 넘어간셈인데 고민이 적지않은듯 합니다.

—여기에다 黨지도부와 재무위원들간의 보조가 안맞는 집안사정도 만만치 않지요. 지난번 柳致松총재가 黨3役회의를 소집한데이어 林鍾基총무의 적극자세로 재무위小委가 成事될뻔한것을 재무위원들이 뒤집은것은 對話不調로 봐야겠지요.

—아뭏든 實名制문제는 사실상 일단 留保·死産된 셈인만큼 與野모두에게는 앞으로 일은 稅法案심의에따른 名分찾기만 남은것같아요. 林민한총무도 밝혔듯이 재무위小委도 금주중에 구성될전망이지만 앞으로도 波動의후유증이 계속될 조짐입니다.

—實名制문제를 놓고 民韓黨을『청개구리같이…』라고 공격했다가 民韓黨으로부터

보여야하고 與黨은 아량을 보여야하니 서로 이해가 맞는 셈이라고나 할까.

—마바지에 뜻밖에 튀어나온 資源管理법안이 만만치않은 이슈로 등장했읍니다.

—야당에서는 이법안이 한마디로「헌법정신과 작년12월「국가보위특별조치법」을 폐기시키면서 밝혀진 政治的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벌써부터 반대소리가 높습니다.

—「장래에 있어서 필요시에」人的 物的자원을 동원, 관리할수 있도록 된 부분은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가할 수 있는 권한이 정부에 白紙委任된 셈이라고 野黨에서는 주장하고 있어요.

—또 과거의「자원운용등에 관한 규정」이 발동요건을「국가보위특별법」5條에의거,「비상사태하에서국방상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이법안은「필요시」라고 포괄적으로 표시, 法의强度가 높아졌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작년12월 국회가 保衛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경과규정으로 비상사태하에서 대통령이 국가동원령을 발동할수있게한 保衛法5條는 補完立法마련을 위해 금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지속토록했는데 자원관리 법안은「補完立法」「根據立法」의 한계를 넘어선「目的立法」이라는게 야당측의 얘기입니다.

—자원관리법안은 立案단계부터 국회에 제출되고 소관常委에 배정되는 모든 단계에서 비밀리에 해왔다는점에서 야당의 의혹을 사고있는것 같아요.

—이법안이 가지는 중요성이나 성격에 비춰 정부는 사전에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시켜야한는데도 전혀 그런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것같아요.

—국무회의에서 이법안이 통과될때도 전혀 설명이 없었잖아요.

—이법안은 지난10월25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고위간부가 움켜지고있다가 常委심사를 위해 5일 법안을 회부하는 과정에서 공개된셈이었지요.

—이법안을 심사할 常委가 國防委로 결정된데대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의견이있읍니다. 원래 이법안의 제출권자는 국무총리실이고 총리실소관常委는 운영위이기 때문에 운영위가 심의해야한다는 주장도있어요.

—특히 이법안은 관련부처가 10여개가 되어 사실상 주무처도 主務常任委도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다른常委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운영위에 속한다」는 국회법규정에 비춰봐도 운영위가 심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방위로 넘긴것은 이것이 성격상 安保관계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방위가 非公開로 진행된다는 관례도 참작해서 말입니다.

—이 법안이 제출되자마자 民韓·국민등 야당이 약속이나 한듯 반대하고 상당수 여당의원들도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데는 정부의 책임이 있지요.

—사실 웬만한 나라에는 戰時등 非常사태에 대비, 국가동원 관계법령을 갖고있는데 더구나 폐지된 국가보위법에 근거를 두고 존속해 왔던 이법을 느닷없이 제안, 노출시킨것은 큰 문제지요.

—물론 立法 기술상 목적의 막연한 표현도 그렇지만 중요한 安保관계법으로 이번 국회에 꼭 통과시켜야 했다면 사전에 與野간부들은 물론 매스컴을 통해 국민에게 홍보를 했어야 했지요. 비상기획위 관계자도 無홍보에대해 사과했는데 결과적으로 의혹을 살 소지만 만든 셈이지요.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하는 중요법안을 이런식으로 불쑥 내미는 것은 그야말로 안이한 官僚的타성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지요.

—이법안으로 정부·여당은 이래저래 실명제이래 또한차례 홍역을 치르게 될 여지도 없지않습니다.

—이런 저런 爭點법안의처리와 아울러 앞으로 예산심의를 본격화할 豫決委도 관심의 촛점이 될것같아요.

—豫決委운영이 작년보다 원숙해졌다고 할수있지만 장황하고 산만한 의원의 질의와 規格化된 일부 장관의 답변은 여전했어요.

【整理=李以春기자】

처리過程 은밀…事前홍보없어

정부·與黨 實名制이래 紅疫치룰 소지

◇내년 여름의상 파리디자이너 크레쥬가 考案발표한 83年여름의상。【키스톤=聯合】

海外토픽

풀리처 麻藥밀수

★離婚소송중 부인폭로

미국의 신문왕 조지프·풀리처의 손자인 피터·풀리처씨는 마약밀수에다가 자기딸과 동침까지한 파렴치한이라고 그의후처로현재 이혼소송중인 록산느·풀리처(31) 부인이주장했다.

록산느부인은 3일 플로리다주의 한법정에서 변호사가 자신의 결혼생활을 하나의「주종관계」로 묘사한 정신과의사의 진술에 관해 질문하자 울음을 터뜨리면서 언젠가 남편이 장녀 라이저(26)양과 동침한적이 있으며『그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있음』을 자신에게 고백했었다고 증언했다.

풀리처씨는 이에대해『순전히 악의에찬 억측』이라고 반박했는데 두사람은 현재 두아들의 양육권과 2백50만~2천5백만달러로 추정되는 풀리처가의 상속권을놓고 소송중이다. 【웨스트·팜·비치(美플로리다주)=UPI】

警察犬고양이돌봐

★본래職務 3일간 잊은채

소련 오르샤市의 경찰견 한마리가 최근 추위와허기에 지친 새끼 고양이를 보살피느라고 3일동안이나 직무를 이탈했다.

소련 노조기관지 트루드에 따르면 문제의 경찰견은 이 불쌍한 새끼 고양이가 그의 개집에 뛰어들어오자 고양이에게 개집의 가장 좋은 장소를 제공하고 맛있는 고기를 골라 먹여주더라는 것. 【모스크바=UPI】

中共지방장면안돼

★臺灣 홍콩映畵상영금지

대만당국은 최근 홍콩에서 제작된 한 영화에 대해 중공지방의 장면이 나온다는이유로상영을금지했다.

피터·융이란는 감독이만든「사후세계」라는 이영화는 한 사나이가 꼭둑각시로 환생하여 복수의 집념을 실현한다는 줄거리인데 융감독은 이 영화의 일부장면을 촬영하기위해 중공본토인 新疆지방에 갔었다는것. 【臺北=AP】

賣春도 課稅판결

★스웨덴營業장부비치해야

스웨덴의 밤의 여인들은 매춘이 과세의무를지닌 개인업종으로 법원이 최근 판결함에 따라 과세근거자료로 영업장부를 비치, 운영해야 할판이라고 울상.

스톡홀름 홍등가의 한직업여성은『고객에게 영수증이라도 떼줘야 한단 말이냐』고 느닷없는 법원의 과세판결에 불만을 토로했는데 매춘이 합법화된 스웨덴에서 세무당국은 지금까지 세계最古의 이직업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스톡홀름=UPI】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 역활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확장 이전

케네디 꽃집

■ 각종 Arrangement
■ Plant화환
■ 주문배달
■ 꽃 도산매

2196, 2252-4 BLOOR ST.W.
762-1572
대표 김 웅 일

Chameleon Sunglass Boutique
〈각종 고급 썬그라스 대매출〉
각종 유명 메이커제품을 구비하고 한인교포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Paola Belle ·Zeiss ·Porsche ·Ted Lapidus ·Yves St.Laurent ·Christopher Magnus ·Play boy
검안 해 줍니다. Prescription Also Available 15% Discount Korean Only
·Christian Dior ·Ferrari ·Nina Ricci ·Roger Gallet ·Emmanuelle Khahn ·Pierre Cardin
광고쿠폰을 가져오시면 15% 할인합니다. Bring This Ad for 15% Discount Korean Only

St. Charles Promenade(Tel: 920-4062)
(One Block South of Bloor St.)
730 Yonge St.(블루어×영 남쪽)

맛 사 지

DIXIE HEALTH STUDIO

Whirlpool * Sauna
Gym * Massage
Luxurious Surroundings
OPEN 10 AM-1 AM
5170 Dixie Rd. (near airport)
MISSISSAUGA
624-8822

초점 우리독립운동史料의 寶庫 臺灣을 찾아서

臺灣은 한국獨立運動史의 숨은 寶庫다。특히 중국본토에서 옮겨온 몇몇 史庫는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새롭게 조명할수 있는 귀중한 史料를 무더기로 간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일본의 역사왜곡으로 비롯된 우리獨立運動史에의 관심이 높아지고있음에 즈음하여, 한국일보社는 金湧精외신부장과 金海雲사진부차장을 臺灣에특파, 아직도 연구가미진한 臨政史자료등을 추적했다。【편집자註】

「묻힌歷史」를 캔다

臨政승인부터 光復까지 관계사 가득

◇林秋山 文化大 한국연구소장。慶熙大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胡春惠박사。한국독립운동사 연구의 1인자로 꼽힌다。

◇黃季陸 國史館長。黃관장은 한국의 독립운동에도 인연이깊다。

우리나라 獨立運動史의 일면을 재발굴·재조명할수있는 여지는 도처에 널려있다。

이「餘地」는 특히 국외에서 임시정부를 수립、수십년간 고난을 극복해가며 光復을 쟁취했던 志士들의 활약相속에 맥맥히 묻혀있다。

1949년、蔣介石의 國民黨 정부가 대륙본토를 빼앗긴뒤 臺灣으로 철수할때、수백척의 船便이 실어나른 「보물」중에는 엄청난 양의 각종 정부보관문서도 들어있었다。이들 문서는 지금까지도 그수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정확히 알려져있지 않다。따라서 한국독립운동관계의 자료가 그중에 얼마나 되는지도 잘 모른다。실제로 이 소장자료들은 아직까지 공개되지않은것이 수를 헤아릴수없을정도라고 한다。

그동안 관계학자들에의해 부분적으로 복사(複寫) 공개된것이 있기는하나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게 현지 관계자들의 일치된 證言이다。

臺灣에서 이같은 國寶級자료들이 소장돼 있는곳은 「國民黨史위원회」를 첫째로 꼽는다。

타이페이(臺北) 북쪽 陽明山허리에 本건물과 창고 20개로된 국민당사위원회에는 1911년 중국국민당이 창당될때부터、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黨관계문서가 「극비」로 보존돼 있다。

따라서 1936년 西安사건에이어 蔣介石의 2차 國共合作이 있은뒤 上海의 佛租界에있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정식으로 그들의 승인을 받을당시、그리고 그이후 우리나라의 광복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양국관계史가 낱낱이 기록 보존되어 있는것이다。

이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한국(임시정부)과의 관계자료는 金九주석을 비롯한 임정요원、그리고 그밖의 관계자들간에 오고간 결재서류와 메모의 원본이 그대로 보관돼 있으며 일부는 복사、또는 사진版、스크랩등으로 보존되어 있다』고 밝히고 『보관한 곳의 地名은 밝힐 수 없으나 여러곳의 地下에 분산 보존되고 있다』고 말했다。

國寶級史料는 國民黨史委에

국민당사위원회 다음으로 많은 자료를 간직한 곳은 國史館이다。이곳에는 1894년부터 1940년까지 즉 淸末부터 中華民國초기까지의 정부公文과 문서가 모조리 보관돼 있다。그이후 현재까지의 주요 정부공문서들도 보관돼 있다。

특기할 일은 지난79년부터 「韓國硏究中心」이라는 한국관계연구센터가 관지 설치돼 별개의 分野로 자료를 관독하고 분류、정리해 나가고 있는 점이다。

이밖에도 여사자료는 蔣介石總統자료실、大溪館(장개석개인자료실)、國防部史政局등에도 보관돼 있지만 대부분이 공개되지 않고있다。

이같은 자료에 근거해서 臺灣에는 韓國史、특히 한국의 독립운동사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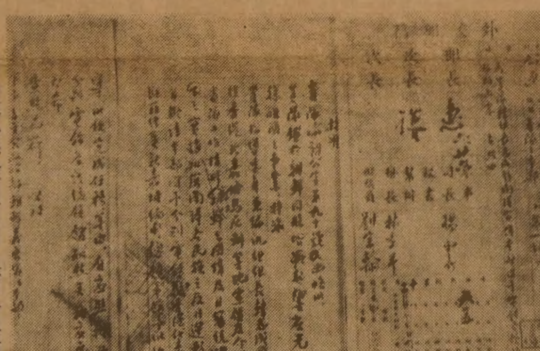
대표적인 인물로는 정치대학의 역사학과주임교수인 胡春惠박사 그리고 문화대학의 한국학연구소장 林秋山박사등을 꼽을수있다。

胡박사는 한국의 독립운동사만을연구해오면서 국민당사위원회、국사관등을 통해 많은 중요자료를 입수했지만 아직도 보고싶고 밝히고싶은 자료가 수없이 많다고 말한다。

胡박사는 더이상의 자료열람이 어렵게된 이유를 『이제 남은것들은 그야말로 국가의 중요機密에 속하는것이기 때문인것같다』면서 특히 軍관계중에서도 병사의 육성·훈련·작전부문、그리고 지금은 中共이나 北韓에있거나 이미타계한 당시관계자들의 행적、외교관계자료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胡박사가 지금도 찾아 밝히고 싶은 내용은 1940년대 중국의 外交관계。한마디로 당시에 중국은 미국의 눈치를 봐야했고、미국은 또 소련의 눈치를 봐야했기때문에 한국光復軍에 대한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이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胡박사는 孫文의 혁명을 주도했던 戴季陶란 사람이 한국의 독립운동에 깊은 同情과 관심을갖고 많은 도움을 제공했던사실에 흥미를갖고있다고 소개한다。그가 한국독립운동을도운동기는 朴泳孝와도 관계가 있었다는 한王族의 후예 여성을 알고부터라는것。그런데 그여성의 이름의 끝자가「子」라는 것만 밝혀졌을뿐 정확한 이름과 배후가 밝혀지지 않아 正史를 알아낼수없다는 것이다。


◇최근에 판독을 완료、한국연구센터에 보관된 독립운동관계 공문。朝鮮義勇隊 金若山대장에게 보낸것이다。

우리나라 慶熙大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받은 林秋山교수 역시 한국의獨立運動史에관한자료발굴에열심이다。林박사가 그동안 국민당사위원회에서 찾아낸 관계자료만도 1백여건이 넘는다。

그가 얻어낸 자료가운데는▲1940년 한국임시정부가 鎭江에서 重慶으로 옮기직전 한국국민당、한국독립당、조선혁명당이 그해 4월1일자로 한국독립당으로 병합될때의 배경설명文▲1943년2월20일 대한민국임시정부외교부장 趙素昻이 중화민국외교부장 宋子文에게 보낸 조회문서▲1942년8월17일 蔣介石총통이 한국의독립운동을 지원키위해 간부들과 구체적토론을 벌였던 회의기록▲1944년 광복군훈련과 임시정부에 대한 경비지출원칙을 결정한 處理韓國問題之原則▲蔣총통이 한국임시정부에 각종 지원을 명령할때 보낸 私信▲金九선생과 오고간 서신등 다수가 포함돼있다。

林박사는「韓國硏究」란 월간학술지발간을 주도하고있는 열렬한 한국연구가。그는 독립운동史중에서도 1937년 국민당정부가 重慶으로 옮겨진뒤 金九임시정부주석과합의、중국군군관학교에 한국인班을설치해 光復軍사관양성을 시작하게된 배경과 쌍방의 요구조건등이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않아 이를 계속발굴、연구하겠다고 말했다。

林박사는 또 지금부터라도 한국독립운동사의 定立을위해 韓·中양국정부가 서로 협의하여 학자파견연구등을 추진할 필요가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관계학자들간의 學派싸움이 지양되지않는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일관된 독립운동史 정립이 어려울것이라고 지적하기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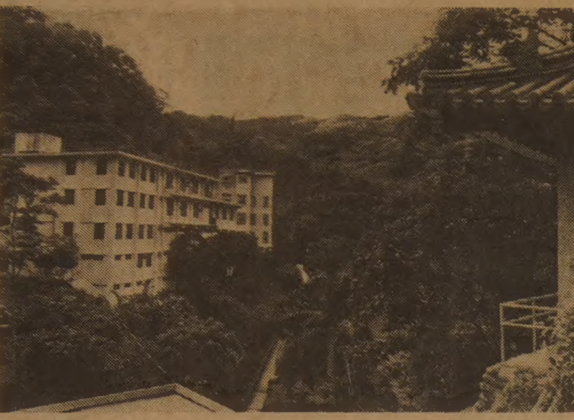
국민당사위원회를 비롯、곳곳에 수없이 소장된채 공개가 되지않고있는 중요자료들 외에도 당시 임시정부인사들과 친밀하게 지냈던 관계자로 현재 생존해있는 人士또한 정부차원의 시도만 있으면 당시의 기억을 더듬어 口述입증을 얻는방법이 있으며 그들이 간직하고있는 소장품가운데 독립운동에 관한것을 얻어내는 방법도 있을수있다。

현재 생존중인 관련인사로는 당시 중국군사위원회 총장이었던 何應欽(92) 초기 國民黨의·각부장을 역임한 張群(94) 陳立夫옹(95)등이 있으며 모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않아 지방에서 요양중이거나 아니면 병원생활을 하고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史는 국내에서도 명확하게 정리되지않은 부분이 남아있는것이 사실이지만、임시정부활동을 중심으로한 國外의 경우는 더욱 未公開된 자료가 산적해있는것이 현실이다。이들 臨政史는 더욱 깊숙이、더욱 세밀히 내용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된다는게 학자들의 증언이다。

臺灣의 국민들조차도 어느니、어느지역에 숨겨져 있는지를 알지못하는 중요역사자료들이지만、그렇기때문에 더욱 정부차원의 재발굴、재조명작업이 절실한단계가 아닐수 없다。

4百萬점의 자료 國史館


◇國史館전경 臺北의 國史館 전경。6층건물의 이 국사관에는 연구원들의 사무실이 있고 지하에는 4백만건에 달하는 정부 公文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다。

◇캐비닛열쇠만 千개 자료가 판독 분류되면 카드에 기입, 재정리된다。1천개가 넘는 캐비닛 열쇠가 보존자료의 방대함을 말해준다。

◇地下창고 자료보관실 國史館지하창고의 자료보관실。모두 1천1백개의 캐비닛에 박스로 포장된 자료(공문서)들이 보관되어 있다。

타이페이(臺北)市 북부에 위치한 新店마을 깊숙한 계곡、산봉성이를열에끼면서 기다란 6층 건물이 들어서있다。

지난 69년 정부예산으로 세워진 國史館 건물。

정문을 들어선 뒤 계곡쪽을 향해 50여m쯤 걸어가면 연구원들의 연구실이 나타난다。

그리고 다음 건물부터는 각방 마다 연구원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이것저것 관계서적을 뒤적이는 모습을 볼수있다。

이곳이 중국정부의 公文書들만을소장하고 있는 곳이다。국사관의 장관은 地下창고의 칸막이 방이다。

현재 이곳에 보관된 公文은 모두 4백여만件이라고한다。지난13년간 한건 한건을 다시 풀어 판독하고 歷史性을 분류、새 대장에 기입한뒤 필요에 따라서는 사진을 찍어 필름으로 보관하거나 복사판으로 스크랩을 해두기도 한다。

이 國史館관장은 올해84세의 黃季陸박사。역시 한국의 독립운동史에 깊은 관련을 맺었던 인물이다。

중국대륙의 四川출신으로 廣州의 中山大에서 정치학강의를 하기도했던 黃관장은 臺灣으로 옮겨온후에는 內政部長(1950～1954)을 시작으로 행정원정무위원、고시원考選부장、교육부장등을 역임했다。

그가 한국독립운동과 연관을 맺었던일 가운데는 金奎植박사와의 추억도 들어있다。그가 1941년부터 해방이되던 45년까지 四川省 成都에 있는 四川大총장으로 있을때 영어구사가 출중했던 金박사가 바로 이대학의 외국어학과주임이었기 때문。

임시정부의 외무총장을 지낸 金박사는 日警의 수배를피해 잠시 四川大에 은신해있던 때였다。黃박사는 강의가 끝난뒤면 언제나 사택에서 金박사와함께 한국의독립에 관해 의논했고 국제정세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했었다고 회고한다。

국사관의 설립도 옛날 학교에서 생활했던 경험을 토대로 그가 정부를설득、성취한것이라고 밝힌다。

『1911년 辛亥革命후 이혁명에참여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國史院이란 기구를 설치하려했지요。그러나 정부군벌이 언제나 불안정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뜻을 이루지 못했던것입니다』

臺灣의 국사관이 설립된지 이제 겨우 13년밖에 안된다는 自愧의 설명이었다。

「한국硏究中心」따로 설치…學者교류 절실

국사관의 연구요원은 모두 1백10명。지금도 모두 1천1백개의 캐비닛에 박스로 차곡차곡 보관돼있는 옛자료(公文)들을 하나 하나 조심스럽게 꺼내 소중히 다루며 내용을 판독하고 분야별로 카드化한뒤에는 좀이 슬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특수처리를 해나간다。

캐비닛이 1천개가 넘기때문에 그 열쇠 또한 1천개가 넘는다。

이곳의 자료들은 黨관계가 아니고 주로 관공서의 공문들이기 때문에 간략한 내용으로 된것이 많다。

연구진이 최근 발굴해낸 한국관계자료가운데는 1940년2월 外交部가 작성한 「國民政府軍事委員會 政治部 朝鮮義勇隊 本部公函」이 있다。이때의 의용대장은 金若山이었다。

이러한 한국관계자료(公文)들은 3년전 따로 마련한 「韓國硏究中心」에 보존되고 있는데 이 한국연구센터의 설치에는 李瑄根박사의 힘이 컸었다는게 黃관장의 설명이다。

거의가 관공서의 공문紙로된 이들 자료가운데 현재까지 판독、분류가 끝난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그만큼내용을 정확히 밝히고 역사성을 분류하며、때로는 시기와 장소등이 불분명해 관계자료나 관계학자 또는 관계인사들을 초청하는등 작업이 어렵다。

빛이 누렇게 바랜데다 좀이 슬거나 벌레 때문에 구멍이 뚫려 과손됐을때는 자료 1장에 두어달의 판독시간이 걸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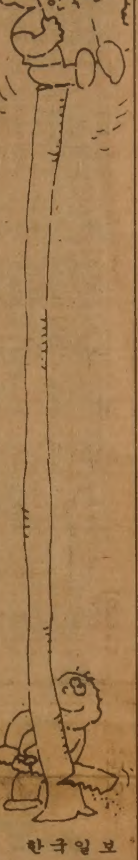
『그동안의 발굴자료가운데 한국관계는 별로없었읍니다。그렇지만 앞으로 계속되는 작업을통해 특히 한국의 독립운동에관련되는 자료들은 수시로 귀국의 국사학자들에게 알려줄작정입니다』

黃박사의 약속이었다。

지하실이기때문에 습기를 우려、환한전통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는한편 캐비닛마다 최신 保溫器가 부착돼 자료의 연구보존에 정성을쏟고있는 연구진들。이들도 더욱더 빈번한 학자교류와 연구진들의 왕래로 지난날의 역사를 재조명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모았다。

글 金湧精외신부장
사진 金海雲사진부차장

한국일보 특집판



한국일보 533－2361

한인침례교회

심령대부흥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민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저희 교회에서는 현대 교인을 위한 하늘나라의 메세지를 교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져 하오니 오셔서 피곤한 영혼이 쉼을 얻으시고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인침례교회 담임 홍신웅 목사 드림

강사：이 영 섭 목사
(목회학박사. 철학박사)
제리힐장로교회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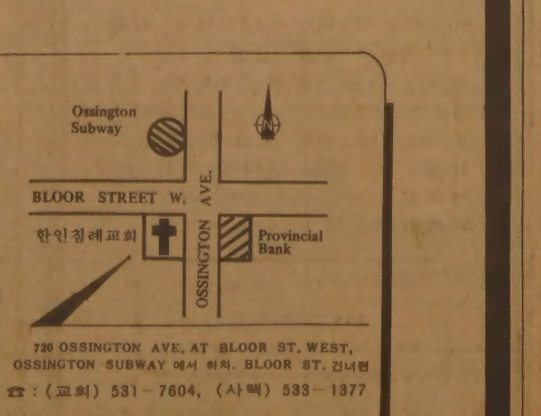
부흥회 일정

●11월25일(목) 저녁 7 시30분
"현대인의 모습" 요한복음10：1－10

●11월26일(금) 저녁 7 시30분
"주께 향한 눈" 시편123편, 1－4

●11월27일(토) 저녁 7 시30분
"호렙산의 불꽃" 출애굽기 3：1－11

●11월28일(일) 새벽 6 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후13：1－5
오후 2 시
"하나님의 뜻" 로마서12：1－2
저녁 7 시30분
"예수의 흔적을 가져라 갈라디아서 6：11－18



720 OSSINGTON AVE, AT BLOOR ST. WEST,
OSSINGTON SUBWAY 에서 하차. BLOOR ST. 건너편
☎：(교회) 531－7604, (사택) 533－1377

목요 연재

한국민족주의 原點을 찾는다

특집판

現代史의 現場 ③

題字 原谷 金基昇

「是日也放聲大哭」의 張志淵

大韓帝國의 운명이 기울어가던 1905년11월20일 皇城新聞에 실린 사설「是日也放聲大哭」은 우리 言論史를 가장 찬연하게 장식한 金字塔이다.

全文 4백97자에 지나지않는 이 짧은 논설은 섣난 파도처럼 不義를 매도한「知性의 저항」을 상징하는 글이기도하다. 필자 韋庵 張志淵선생은 국권을 일본에 넘겨주는 乙巳5條約에 서명한 大臣들을 서슴없이「豚犬(개돼지)」으로 몰아붙이는 전투적」인 저항정신을 발휘하였다.

이 논설은 전반부에서 伊藤博文이 한국에 온것은 東洋三國의 平和를 위한것이라 해놓고 5條約을 체결한것은 東洋三國을 분열시키는 처사라고 일격을 가한뒤『…大皇帝陛下의 強硬하신 聖意로 拒絕하옴을 不已하셧스니 該約의 不成立함은 想像컨대 伊藤侯의 自知自破할바어늘 噫 彼豚犬不若한 所謂 我政府의 大臣者가 榮利를 希覬하고 假嚇를 恇㤼하야 逡巡然觳觫然 賣國의 賊을 甘作하야 四千年疆土와 五百年 宗社를 他人에게 奉獻하고 二千萬生靈으로 他人의 奴隸를 毆作하니 彼等豚犬不若한 外大朴齊純及各大臣은 足히 深責할것이 無하거니와… 何面目으로 強硬하신 皇上陛下를 仰對하며 何面目으로 二千萬同胞를 仰對하리오. 嗚呼痛矣며 嗚呼憤矣라 我二千萬爲民奴隸之同胞여 生乎아 死乎아 檀箕以來 四千年國民精神이 一夜之間에 猝然滅亡而止乎아 痛哉痛哉와 同胞아 同胞아』하고 피를토하듯 절규하며 맺었다.

高宗이 그토록 강경하게조약을 반대하였는데도 불구하고『그들 개 돼지만도 못한 외무대신 朴齊純등 정부대신이라는 자들이(彼等豚犬不若한 外大朴齊純及各大臣)영리를 탐하여 조약에 서명한 것을 直筆로 매도한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 논설이실린 신문은 지금 단 2장밖에는 없다. 1장은 국립중앙도서관에, 또 1장은 韋庵의 후손인 張小浩씨(62·大邱市 北區砧山2洞9)가 보관하고있다.

당시 皇城新聞의 사장겸주필이었던 韋庵이 일본당국의 검열을 받지않고 배포했다하여 일경이 배달된 신문을 모두 회수해 불태워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둘째 할아버지집에 그 신문 2장이 배달되었든데 일본순사가 신문을 압수하러오자 할아버지가 1장은 내주고 1장은 책갈피속에숨겨 보관하게 됐다고 해요』

韋庵의 증손녀 張南洙씨(51·서울城北區貞陵2洞192의175)의 증언이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에는 현재 그신문이 보관돼있지않다.

당시 서울에서 발간되던신문들은 이미 일본경찰의 검열을 받고있었다. 1904년7월20일 발표된 이른바 軍事警察訓令이란 것에는『집회·신문·잡지·광고등이 치안을 방해한다고 인정될때는 이를 해산·정지·또는 금지시킬수있다』는 조항이 들어있어 일본은 이를 근거로 한국신문을 검열했던 것이다. 그런데 韋庵은 이 논설을 쓴뒤 검열을 받지않고 신문용지재고를 모두 꺼내어 밤새도록 1만부를찍어 서울과지방에 뿌렸다. 韋庵은 日警이 잡으러오기를 기다렸다가 의연한 자세로 연행되었다.

『잡혀가실때 인력거를 부르시니까 일본순사가 걸어가자고 했대요. 그랬더니 불같은 호령으로「이놈아! 내돈내고 내가 타고가는데 웬잔말이냐」고 호통을 치시고는 정문에서 내리라는 제지를뿌리치고 통감부현관앞에서 내리셨다고 들었읍니다』

손자며느리 姜彩順씨(72·경기도光明市鐵山주공아파트221동106호)는 韋庵선생의 당당했던 자세를 이렇게 전했다. 伊藤博文과 대좌한 韋庵이 書類箱紙를 회휘 집어던지는것을보고 伊藤이『아직도 韓國에는 國運이 남았다』고 했다는 얘기는 유명한 일화이다. 그가 잡혀간뒤 그의 집에는 쌀과 고기와 솜옷이 끊임없이 답지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그 잡힌일을 하고 옥에서 고생하는 이에게 따끈한 밥과 국을 넣어드리라는 民草들의 성원이었던 것이다.

韋庵의 유해는 지금馬山市縣洞 야트막한 야산중턱에누워있다. 慶南日報의 주필자리를 내놓고 馬山府관립관으로 일하던 장남(在軾)의집(馬山市壽成洞45)에서 라앉던 울분을 痛飮으로 달래다 1921년10월2일 58세를 일기로 작고, 馬山땅에 묻혔다.

『그동안 韋庵선생을 추모하는 문화제가 성대히 열렸는데 재작년부터 중단되어안타깝습니다』

선생의 묘를 관리하고있는 縣洞국교 朴得永교사(41)의 설명이다. 馬山·昌原·鎭海지역의 각국민학생들이 글짓기·서예·웅변·사생의 기를 겨루던 韋庵문화제는 10년가까이 昌原郡교육청의 후원으로 거행돼오다 縣洞이 馬山市로 편입된후로는 馬山청년회의소가 예산을 지원, 행사를열어왔으나 예산난으로 3년째 중단되고 있다는것이다.

다행스레도 韋庵의 幽宅은 그리 초라하지는 않았다. 후배新聞人들이 지난67년 묘비를 세우고 철책을 두르고 묘역에 나무를심는 정화사업을 해놓은 덕분이다. 선생의 유택 바로 옆에는 부인 碧珍李氏의 묘도 들어섰고 아랫녘에는 아들의 무덤까지 거느리고있어 보기 좋았다.

묘역을 청소하는 縣洞국교학생들에게 물으니『張志淵선생님예?위대하신 언론인이셨지예!』하고 합창하듯 대답한다. 묘비 하나가 세워진것이 이토록 대단한 교육효과를 나타내는가 싶었다.

그러나 정작 그가 태어나 성장하고 글을배웠던 尙州땅에서는 아무런 흔적도 발견할수 없었다. 그 흔한 비석하나 세워져있지않을뿐 고사하고 그가 태어난곳이 어디라는 것조차도 확인할수없었다.

1백년이란 세월이 그토록 오랜것인가하는 깨달음보다는 그 무심한맘각이 한스러웠다.

기록에 의하면 韋庵은 1864년11월30일 경북尙州牧內東面東郭里에서유학자張龍相의아들로태어났다. 尙州牧內東面東郭里는 그후 행정구역개편으로 尙州邑이 되었는데 東郭里란는 동네이름이 없어져 그가 태어난 곳을 정확히 밝힐수 없다는 얘기였다.

향토사학자 柳時淙씨(68·前尙州高교장)는『東郭里란 尙州城東門밖마을임이 틀림없는데 지금의 仁鳳洞아니면 城東洞일대가 옛東郭里에 해당된다』고만 고증했다.

仁鳳·城東 두마을을 헤매며 혹 그럴싸한 古屋이라도 한채 찾아보려했으나 허사였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곳에서 나시고 장가들어 21세까지 사셨다면 집은 없어졌더라도 집터가 여기다하고 짚을수는 있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柳씨는 그 부끄러움을 씻기 위해 늦었지만 향토애국지사추념비를 세우는일을 추진하고있다고 말했다.

尙州출신 의병장 柳佑國의 아들인柳씨는 韋庵선생을 포함, 尙州가 낳은 14명의 항일애국지사추념비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모금운동을벌이고있다고 밝혔다. 현재 모금액은 6백만원. 얼마간 더 모금을 계속한뒤 부족분을郡당국에 지원해달랄 작정이라 했다. 그리하여 2천만원쯤 되면 邑內 金泉行국도변에함동추념비를 세우겠다는 계획이었다.

伊藤앞에서 書類던진 氣槪

紀念碑 하나없고 追慕祭도 3년째 중단

皇城新聞의 社屋은 漢城府中署 鍾路白木廛後 前綿紬廛都家 第20統2戶」에 있었다.

서울市史편찬위원회 상임위원 朴慶龍씨(42)는 지금의 瑞麟洞 東北쪽, 즉 鍾路4거리의 西南쪽모서리고하철입구부근에 해당한다고 고증했다. 白木廛이란 광목등을 팔던 포목점이란 綿紬廛이란 솜과 비단을 팔던 상점이었는데 그런상점들이 鍾路일대에 밀집돼있었다는 것이다.

신문이 창간된 곳은「漢城府中署 澄淸坊黃土峴 第23統7戶 前石巡廳(右巡廳)자리」이었다. 지금의 光化門네거리와 新門路일대에 있던 작은 고개를 이름이다.

물론 2곳 모두 옛흔적은 사라진지 오래이다.

皇城新聞은 물론 韋庵의 체포와 함께 日警에 의해 무기정간을 당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사실이 한가지있다. 皇城이「是日也放聲大哭」과 함께「五件條約締結顚末」이라는 조약체결경과를 상세히 보도하고정간당하자 다음날인 21일 동업 大韓每日申報는「皇城義務」란 논평을 실어『皇城新聞이 조약체결의 전말을보도한것은 그의무를 다한것일뿐만 아니라 實로 大韓全國社會臣民의 대표가되야 光明正直한 義理를 世界에 發顯하리로다』하고 칭송했다.

그리고 이사설은 大韓臣民뿐아니라 세계각국의 정의심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통분함을 금치못하게한 글이라고 평가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 신문은 11월22일부터 25일까지 皇城에 실렸던 조약체결전말 기사를 연재했으며, 11월27일에는 號外2面을 발행, 1면에는 한글로 번역한 기사를, 2面에는 英文으로 번역한 기사를 실었다. 경쟁 동업지가 발을 맞추어 言論의 正道를 걸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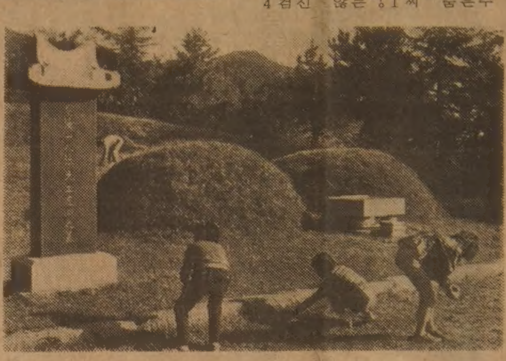
韋庵은 아들만 셋을 두었다. 장남(在軾)은 의아들을(鎬翼 6·25때납북)을 두었는데 그 손자이며 韋庵의 증손인 載洙씨(34·세일상업사장)는 光明市鐵山 주공아파트에서 어머니 姜彩順씨(72)와 살고있으며 南洙(51)·京洙(46·부산물래국교교감)·李姬(36·城南市 성일여상교사)등은 韋庵의 증손녀.

2남(在轍)은 요절, 入養子張小浩씨(62)가 大邱에 살고있고, 3남(在輪)은德順(70)·德惠(62)·德明(51)등 딸셋을두어 大邱와 서울에 각각 살고있다.

손때묻은 유품들과함께 증손 載洙씨가 보관해오던韋庵의 遺稿는 檀國大東洋學研究所에 의해 全集7卷으로 간행되었다.

【馬山=文昌宰기자】

◇지조와 기개의 志士 張志淵선생초상。



◇馬山縣洞국교뒷산에 잠든 韋庵張志淵선생의묘소를 어린이들이 돌보고있다。묘역은 잘 정돈되어있지만 그를 기리던 행사가 끊긴지 3년째라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다。【馬山에서 張啓文기자찍음】

乙巳5條約을 痛駁

◇韋庵일화를 말하는 손자며느리 姜彩順씨(72)(上)와 증손녀 張南洙씨(51)。

빛나는 民族正氣의 4百97字

理路整然…한국言論史上 영원히 남을 名論說

崔埈

<中央大신문방송대학원강사>

「是日也 放聲大哭」하면 張志淵을 생각하게 되고 張志淵하면 그 痛烈한 言論人의 상징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사실 그가 쓴 수많은 논설중에서도「이날에 목을 놓고 통곡하노라(是日也放聲大哭)」처럼 널리 알려져 있는 것도 드물다. 그것은 國權을 빼앗기게되는 마당에 新聞이 사실만을 보도,전달하는데그칠수는 없는 노릇이라 생각한 것이 바로 당시의「皇城新聞」사장이었던 張志淵이었고 따라서 그가 직접 집필한 것이 바로 위와같은 論說의 논설이었기 때문이다.

그때의 시대 상황이란 軍國日本이 제정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韓帝國을 강점하려는 야욕에 불타서 伊藤博文을 수반으로 한 日本軍을 궁궐에 침입시켜 무력위협을 서슴지않고침략조약의 수락을 강요했다. 물론 당시 최고 통치자인 高宗은 이를 거절했으나 일부 각료들은 外交權을 빼앗아간 이른바 乙巳保護條約에 서명했던 것이다. 외교권을 박탈당한다는것은 곧 자주독립권을 상실하는 것이라 국민으로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특히 언론기관으로서는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日本軍은 전쟁을 이유로 韓帝國의 모든 民間新聞에대한 사전검열제를 이미 강행하고 있었으므로「皇城新聞」을 비롯한「제국신문」등 민간신문들은 무력에 눌려 이를 따를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민간신문의 보도및 논평의 내용은 나약할수밖에 또한 도리가 없었다. 말하자면 日本軍의 검열당국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의 언론활동이었으니 日本의 침략을 정면으로 논평내지 공격할수도 없었던것이 당시의 실정이었다.

이처럼 韓帝國말기의 언론계는 日本침략자들때문에 꼼짝도 못할 지경에 빠져있었으나 張志淵은 결연히 붓을들어「이날에 목을 놓고 통곡하노라」란 논설을 써서 그날 따라 新聞의 사전검열도 받지않고 그대로 시중에 반포하였다. 뒤늦게 이사실을 알아차린 검열당국은11월20일 새벽5시를 기해 日本人순검지휘로 황성신문사를 급습한후 동사내에 아직 발송하지못한 남아있는 신문을 몰수하는한편 기계와 활자마저 사용못하도록 봉인하는 한편 사장이요 집필자인 張志淵을 체포하는 동시에 同報의 발행정지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초강경조치를 취하게된 그들의 내세운 이유는 이러했다. 첫째 새 조약을 반대하는 사실을 날조,황당무계한 논설을 실었다는것, 둘째 警務廳顧問部의 사전검열을 받지않고발행,반포했다는것.

세째 치안을 방해했다는것등이었다. 그러면 과연 張志淵의 논설이 황당무계한 것이며 치안을방해한것일까.

이 논설은 모두 4백97字의 짧막한것으로 세 句節로 나뉘어져있다. 첫번째는『…侯爵은 東洋三國의 鼎立의 安寧을 주장한다고 자처하던사람이므로 오늘날 그가 와서는 반드시 우리 나라의 獨立을 굳게 부식코자 권고하리라하여 항구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관민상하가 환영하였음을 기술하였고 두번째에서는『…천만꿈밖에 5조약이제출되었다。이조약은 비단 韓帝國을 亡하게할뿐 아니라 실상 동양3국의 분열을 빚어낼 조짐이라 하겠다。그러면 伊藤侯爵의 본래 主義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대황제폐하의 聖意가 강경하여 거절하기를 마지아니하였은즉 그 조약이 성립되지 못할것은 伊藤侯爵스스로가 알았을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귀절에서는『아! 저 개,돼지만도 같지못한 이른바 정부대신이란자는 자기네의영달과 이익을바라고 위협에겁을먹어 머뭇거리고 벌벌떨면서 나라를팔아먹는 도적이되어 4천년의 아름다운 강토를, 5백년의 사직을 남에게바치고, 2천만 생령을 모두 남의노예로몰을하게하였으니 또다시 저개, 돼지만도못한 대신들을 통렬히 비난하고 어떻게2천만동포를 대할것이냐고 책망하면서『…아!원통하고 분하도다. 우리 2천만동포여! 살았느냐 죽었느냐. 檀君 箕子이래 4천년의 국민정신이 하루밤사이에 亡하고 말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로 맺고있다.

<皇城新聞 1905·11·20字, 원문은 國漢文>

위에서 본바와같이 이 논설은 理路整然한것으로 문제의 핵심을 날카롭게 찌르고 있어 역시 名論說이라 아니할수가 없겠다.

이 논설은 다시 언급할필요조차없이 한국언론사상 영구히 빛나는 명논설로 남을 것이 틀림없다 하겠다. 이렇듯 목숨을 내놓고 쓰는 논설은 뭇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는것이라 오래도록 겨레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다. 머나 청렴, 강직한 성품과 생활철학은 그대로 그의 사회관이 될수 있으며 민족관 나아가선 인생관이 될수가 있음을 또한 알수가있겠다. 그것은 신문기자로서 아니언론인 일관된 사상과 지조를 고수할 수있게했다. 名論說은 張志淵과같은 正義에 불타고지조곧은 언론인에게서만 나타나게 마련이다.

종교서관

●기독교및 일반서적

★일반서적 다량입하

714 BLOOR ST. W.

535－1920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그 해 겨울은 따뜻했네 <261>

朴婉緒 作 / 金光培 畵

안개속의 집 ㉘

그러나 남의 비극은 역시 구경거리이상이 되지못했다. 섣사 친화감을 느낀다해도 비극에 대한 모독이긴 마찬가지였다.

『우리 주인은 사장님이 아예요』

수진은 유기사의 행복한 꿈을 깨는게 안됐다싶었지만 그렇게 말할밖에 없었다.

『사장님 아니시라도 이만치 사시면 높은 어른인걸 누가 모를라구요. 알빈 브로커를 안통하고 중동에 연줄이 닿는 높은 어른들을 직접 알게된 것만도 저같은 것헌데는 큰 운이구먼요』

『직접 알게 되다니요?』

『이렇게 사모님을 알게됐으니까요. 사모님이 제얘길 사장님께 여쭤만해주신다면 뭐가 어렵겠읍니까요』

『나머러 브로커가 되란말인가요?』

『원 원 말씀을 그렇게…』

그가 또 손을 비볐다.

『브로커한테 더러 당해봤어요?』

『제가 직접 당해보진 않았어도 집사람이…집사람이 위낙 귀가 여려서요. 이웃에서 더러 그쪽으로 나누간 사람이 있어가지고 누굴뚫해 줬나 또 얼마에 줬나 열심히 수소문해서 그대로하려다가 번번이 돈만 날리고 말았지요. 여편네 못난탓이 뭐하겠어요. 제 운수가 없어서 그런걸』

『돈까지 날려요? 세상에 가엾어라』

『전엔 날림해야 날릴돈이나 왠 있었나요. 오장육부를 만날 술독에 절구다실이 했으니 아무리 벌어봤댔자 밑빠진 술에 물붓기였죠. 여편네 아니었으면 새끼들은 벌써떼거지됐죠. 이제겨우 정신차려 처자식 밥이나 안굶길만하니까 여편네가 글쎄 무섭게 안먹고 안쓰고 모갯돈 만들어가지곤 한우멍에 쏠어넣는게 벌써 몇번째지…』

이렇게 말하는 유기사의작은눈에 갔이 모롤 연민이 서렸다.

『어떡허든지 한번 남부럽지않게 살아보려는 욕심이 대단한 분인가보죠?』

『아닙니다요. 실상은 돈욕심도 없어요. 다만 제 그 고약한 술버릇이 다시 도질까봐 돈은 많이 받고 술은 절대로 못먹는다는 중동땅이라면 환장을하게 좋아하죠. 생각하면 불쌍한 여자예요』

그의 말씨에 따뜻한 정감이 서렸다.

『이런 애기할건 아니지만 웬 아이는 그렇게 많이 낳았어요? 요즘은 세상에 오남매씩이나』

하마터면 없는 주제에, 라고 말할 뻔하다가 참고 이렇게 말하자 그의 표정이 별안간 알쏭해졌다.

『아이가 많다구요?』

그가 말을 더듬는 것처럼 입 언저리 근육을 몇번 씰룩대다가말았다.

그의 얼굴에 딴 사람처럼 깊은 고뇌가 서렸다.

『마음 상했으면 용서해요. 내 말이 너무 직선적이었나?』

『아,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더듬이흉을 했다. 그래 그런지 그의 얼굴에 나타난 고뇌는 동물의 고뇌를 연상시켰다. 절대로 언어로 표현되어 간사스러워질 길 없는저 직국러운 동물의 고뇌를.

수진은 그 남자를 안고 그 말이 통하지않는 고뇌에 직접 닿아보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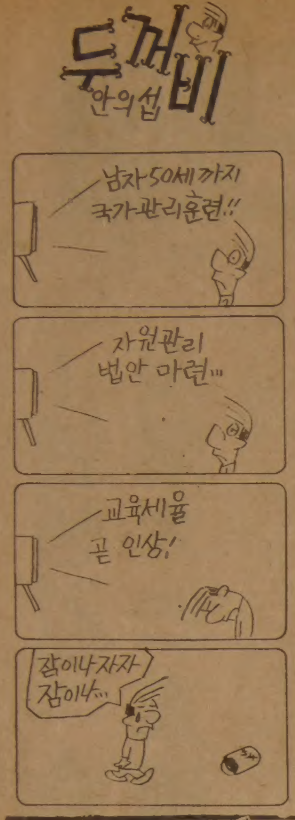
『나가봐야겠어요』

그가 축늘어져 구부정해진 어깨를 보이며 돌아섰다. 그가 나가자마자 곧 차찹을 내가려고 들어온 식모애를 보고 수진은 나쁜 짓을 들킨것처럼 얼굴을 붉혔다.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 : 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 : 30 영어설교 오후1 : 30 오후 2 : 00 금요저녁 9 : 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시민교회	조성관	주일오후 2 : 00 금요기도 밤9시 기관모임 3:20 주일저녁 4:20	662 Pape Ave. Tor	266－4918
대한교회	조남유	주일오후 2시	3819 Bloor St. W.	621－6340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 : 00 금요기도 8 : 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메시아한인교회	조창환	주일오후 1 : 30 영어예배 12 : 30 새벽기도 6 : 00 (오전)토 수요예배오후 8	1580 McCowan Rd.	298－1876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 : 30 주일 낮 12 : 00 주일오후 2 : 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오전11 : 00 금요기도 밤10시 주일오후 1 : 00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적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 : 30 토요기도 밤7시 성경공부 2 : 40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 : 00 주일오후 1 : 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 : 30 수요오후 7 : 00	7 Gretna Ave.(Victoria Pk.&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수요새벽5 : 30 중고등영어 오후1시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선교교회	강재철	주일오후 1 : 00	1 Greenland Rd.	444－800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주일영어 1 : 00 주일성경 1 : 00 주일예배 2 : 00 수요예배 7 : 3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752－98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환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예배 11 : 00 12 : 30 수요오후 7 : 30 토요일오후7시30분	1239 Jane St.& 1384 Weston Rd.	248－4130 233－2266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 : 30 수요저녁 7 : 30 금요저녁10 : 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알)
오순절장로교회	장재택	주일오전11 : 00 금요오후 8 : 00 주일오후 4 : 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일요오후 2 : 00	63 Dunblaine	488－4141
은성장로교회	장은덕	주일오후 2 : 00	8 Amroth Ave. (at Danforth & Woodbine)	266－8820(R) 694－9691(교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전11 : 00 주일오후 1 : 00 금요오후 7 : 30 (영어예배)	68 Collinson Blvd. North York	755－9766 636－1724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 : 30 토요오전 9 : 30 11 : 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 : 00 성경공부 2 : 20 금요오후 9 : 00	502 Bathurst	245－4980 전화설교
천주교회	고종욱	주일오후 1 : 00 토요오후 5 : 30	439 Dundas St. E.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 : 00 주일오후 4 : 30 수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446－1211
키치너 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 : 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 : 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 : 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 : 00, 수요오후 7 : 30 T.V. 예배 8 : 30～9 : 00A.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 : 30 예배 3 : 00 주일학교 3 : 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무면허醫師등 11명구속

釜山 고령·중병醫師 면허증빌어 진료

【釜山】6일부산지검은의사의면허증을 월 1백60만원씩에빌려환자를진료해온부산南區谷美洞603의1 남산의원 간호보조원 金敎珍씨(45)등 무면허의사 4명과 치과의원을 개설한후 나이가많고중환으로 진료행위를못하는 의사대신 의사를가장, 의료행위를해온釜山釜區伽倻2洞167 경선치과조수 金圭宅씨(41·伽倻洞343)등 무면허 치과의사 4명및 자기집에서 한의원시설을 갖추고 의료행위를 해온 노상범씨(48·西區東大新洞1街148)등 무면허한의사 3명。등 모두 11명을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의료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무면허한의사 尹賢得씨(77·東區水晶洞427)를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산의원간호보조원 金씨는 지난 80년6월부터 의사 김상경씨(67)가 고령으로 진료행위를 할수없게되자 1백60만원의 월급을 주고 면허를 빌어 자기가 의사인것처럼 환자들을진료, 월평균 3백여명씩을 치료해왔으며 의사 김씨가 지난 9월20일에는 교통사고를 당해 거동도 못하자 무자격자인 박영출씨(48·구속중)를 사무장으로 고용, 김씨는 산부인과 일반외과, 박씨는소아과 내과를 담당진료를 해왔다。

또한 무자격의사 全在今씨(40·구속·南區 南川洞 삼익아파트 201)는 아파트에 외과 수술실을 갖추고 지난 5월부터 9월사이 쌍꺼풀 수술등 20여명을 치료해온 혐의다。

경성치과조수 金圭宅씨는 지난 1월29일부터 당뇨등으로 검진도 못하는 의사 조영찬씨(73)명의로 개설된 치과에서 무자격자인 安秉九씨(27·南區民樂洞1468·구속)까지 채용, 원장행세를하며 환자 김양금씨(55·釜山鎭區伽倻洞산의30)의 이빨3개를 보철해주고 20만원을 받는등 지금까지 3백50여명을 치료해 왔다。

또한 무면허한의사 노씨등 4명도 한의사 자격이 없으면서 자기집에서 진찰과 한약을 조제해주거나 침을놓아주는등 무자격 한방의료행위를 해온 혐의다。【鎔】

阿峴도시가스事故 施工社 감독등 5명立件

無資格者가 補修작업

속보=서울 阿峴洞 도시가스누출폭발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6일 서울시 도시가스사업소와 시공회사인 대한水機측이 보수공사를 4일간이나 미루어온데다 작업반원 5명 모두가 기능사면허가없는 무자격자들이었고 현장감독이 직무를유기해 사고가난것으로 밝혀냈다。

경찰에의하면 대한水機대표 金永喆씨(47)는 도시가스사업소로부터 하자보수공사의뢰를 받고 기능사자격도없는 설비과장 羅鍾憙씨(사망)등 직원 5명을 보수작업에 동원시켰고, 도시가스사업소장 柳甲善씨(54)등도 역시 기능사면허가 없는 기계기사보 尹哲中씨(32)를 현장감독으로 보냈는데 尹씨는 이날 공사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도시가스사업소장 柳씨, 공무과장 柳志中씨(48)、현장감독 尹씨, 공무계장 具滋源씨(36)、대한수기사장 金씨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가스사업법위반등 혐의로 입건, 7일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작업장에서 불이난것은 작업장내에 설치돼있던 전선이 구조작업중 끊어지면서 스파크가 일어나 펑만하던 가스에 인화돼일어난것으로보고 작업장내에서 타다남은 전선을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羅씨등 작업반원들은 가스가새는 가버너실 배관 이음쇠부분 교체작업을 하면서 가버너실밖에있는 가스차단밸브를 잠그지도 않은채 이음쇠의 너트를풀고 대형드라이버로 이음쇠를 뜯어내다 직경 2백mm파이프에서 쏟아져나온 가스에질식, 그자리에서 숨졌다는 것이다。

한편 이사고로 숨진사람은 작업반원 羅鍾憙씨(36·대한水機산업 설비과장)등 3명과 구조작업반원 黃宰夏일경(20·서울麻浦署소속)등 2명을합쳐 5명이며 구조작업및 진화작업을 벌이던 경찰관과 소방관6명이 가스에중독, 부상당했다。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大邱高法 판결

賂物用 돈빌려주면 債務者에 請求못해

【大邱】공무원에 대한 뇌물로 사용될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줬을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대해 변제청구를 할수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大邱고법제2민사부(재판장 徐정제부장판사)는 6일 大邱市西區坪里洞742 朴홍조씨가 大邱市西區張洞191 許노백씨를 상대로낸 대여금청구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 許씨는 원고 朴씨로부터 빌린돈 3백만원을 갚지않아도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부정한 방법에 사용되는줄 알면서 돈을 빌려줬을 경우 채무자가 스스로 갚지않는한 채권자는 이에대한 대여금청구를 할수없다』고 밝혔다。

피고 許씨는 지난80년8월16일 경북高靈郡雲水面柳洞13의10 임야32만평을 공원묘지로 조성키위해 원고의 아들인 朴모씨를 통해 허가관청연 경북도의 관계공무원 金모씨를 소개받고 金씨가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사례비5백만원을 요구하자 원고 朴씨로부터 3백만원을 차용했었다。

피고 許씨는 또 공원묘지조성허가가 나오면 원고의아들 朴씨와 공무원 金씨에게 상당액의 사례금을 더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그이후 이같은 비위사실이 밝혀져 공무원 金씨는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피고許씨는 묘지조성허가를받지못했었다。【鎔】

獨島순시 전마선 전복 경비대장등 2명 失踪

5일하오 1시30분께 동해안獨島를순시하던 경찰전마선이 전복돼 獨島경비대장 朱在源경사(41)와 전경대원 權五光수경(21)등 2명이 실종되고 金선민 수경등 4명은 헤엄쳐 이웃 西島로 건너가있다가 부근을 지나던 어선에 구조됐다。

朱경사등은 이날 상오11시께 전마선을타고 東島에서西島로 건너가 순찰을 돈뒤 西島를경비할 徐종형 일경등 2명을 내려놓고 본부가있는東島로 돌아오다 변을 당했다。

獨島는 東·西島로 나뉘어있는데 거리는 1백60m。東·西島간을 중심으로한獨島주위에는 파도가 심해 평소에도 전마선으로 접안이어려운곳이다。

교내示威 선동혐의 慶北大生 2명구속

【大邱】大邱北部경찰서는 6일 경북대자연대 생물과3년 金祥淑양(20·大邱市東區新岩1洞628-55)과 인문대사학과2년 金景綠양(19·경북慶山郡慶山邑中山洞245)등 2명을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3일낮 12시55분께 교내 제일합동강의실4층 옥상에서 유인물을 살포한뒤 시위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있다。【鎔】

70代할머니가 自殺 美國간딸 기다리다

【釜山】지난5일 하오2시20분께 시내 中區新昌洞1街4 용두산아파트 708실에서 한인순노파(74)가 미국여행을 떠난 딸을 기다리다 외로움을 못이겨 창밖으로몸을 날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에따르면 한노파는 딸 최선자씨(41)와 함께 살아왔는데 딸이 지난4월 2개월간의 미국여행을 떠난뒤돌아오지 않자 이를 비관해 오다가투신, 자살했다。【鎔】

梨大生 2명을拘束

서울 西大門경찰서는 6일 梨花여대 李敏淑양(22·사학과4년)、韓惠順양(22·사학과4년)등 2명을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3일 낮 12시50분께 교내 C관 강의실413호 창틀에 올라가 유인물을 뿌리고 구호를 외치는등 반정부시위를 선동한 혐의다。【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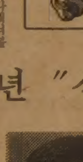
成均館大 3명도

서울 東大門경찰서는 6일 成均館大 金炫虎(21·사학과4년)、曹幸鳳(22·신방과4년)、鄭尙倫군(21·″3년)등 3명을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 2일 낮12시45분께 동교 대학원 2층 강의실에서 창문을 통해 유인물을 뿌리며 반정부시위를 선동한 혐의이다。

″집념″ 光州無等窯 주인 曺基正씨

青磁 몰두20년 ″신비 풀었다″



고려청자만큼 신비에 싸인 문화유산도 없다. 그동안 수많은 도예가가 고려청자를 재현했다고 큰소리치지만, 아직도 그 신비는 풀릴듯 풀릴듯하면서도 미지의세계로 남아있다。

光州 無等窯주인 曺基正씨(45·사진)도 고려청자를 오늘에 되살리는 일에 남다른 집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자신은 고려청자의 신비를 이미 풀었다는 확신에 차있다. 8년전 전남康津의 고려청자도요지에서 청자파편속에 묻혀있던 유약(釉藥)덩이를 발견, 그 신비를 파헤쳐볼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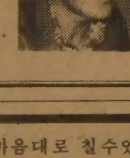
고려청자 재현여부는 제쳐놓더라도 그가 고려청자에 신들린 사람이라는 것은 다 알아준다. 全南大法大를 졸업한 그는 法과는 거리가 먼 파란 사금파리의 신비에 빠져든지 올해로 꼭 20년째다。

그는 그기간동안 발로 도요지를 헤매고 손으로 사금파리를 뒤진 끝에 베일에 싸였던 신비를 풀었다는 설명。그는 고려청자나 이조백자나 중국 宋代의 청자가 사용한 유약은 모두 같다는 유약 동질론을 내세운다。다만 사용량과 흙의 종류에 따라 색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4년전 중국의 점토를 들여와 실험도 했고 新安앞바다에서 나온 청자조각을 분석도 해보았다고 한다。그결과 같은 유약으로 전라도지방에서 나오는 조점토를 사용했더니 고려청자의 은은한 색이 나오더라는 것。

『고려청자는 특이한 비법이 있는게 아니라 이 고장의 특산물인 때릅니다。지역성이 철저한 예술이 가장 세계성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 비법을 공개하지 않느냐』고 물으니「묵묵 부답」이다。



현재 고려청자의 신비를 파헤쳤다는 그의 이론을 기존학자들은 인정하기를 꺼리는 모양이고 그래서 그는 서운한지도 모른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학설을 뒤집기 싫은 학자들의 아집때문이다』고 하지만 학자들로도 그의 집념만은 알아주는 현실이다。

『저는 제 자신을 도예가라고 생각한 일은 없읍니다。陶工의 길은 끝이 없는 수련의 길이니까요』曺씨같은 집념을 가진 사람이 있는한 고려청자의 신비도 멀지않아 풀어지리란 생각이 든다。

【光州=崔琪哲기자】

中共과 臺灣의 戀人이 보금자리 꾸며

무척 幸福합니다

「사랑의 亡命」… 周令飛씨(魯迅의 친손자)

日유학서 만나 熱愛1년餘

「사랑따라亡命길」을 택했던 중공의 젊은 사진작가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사랑을찬미하는 메시지를 보냈다。지난9월중순 일본유학을 마친뒤 귀국길에 연인의 땅 臺灣에 망명한 쪼우·링·페이(周令飛·29)씨。그는 바로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문호이던 魯迅의 친손자이기도해서 한때 세계의이목을 한몸에 받기도했다。

망명 1주일만에 타이페이에서 연인(張純華·25)과행복한 결혼식을 올린뒤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있는 쪼우(周)는 한국기자와의 만남에 처음엔 다소 당황한듯 했지만 이내 밝은 웃음으로 되돌아갔다。

—지금의 심정은?

『무척 행복합니다. 아내와의 새삶에 곁쳐 내가 하고싶은일을 자유롭게 할수있게 됐으니까요』

사진예술을 전공하고있는 쪼우는 지난10월말 타이페이市松江路에있는 한 아파트방에 아담한 화랑도 차렸다。

—부인을 알게된것은?

『2년전 사진예술을 공부하기위해 일본에 도착해서 7개월이 지났을때 예비학교에서 처음 만났읍니다. 그때 아내는 臺灣으로부터 디자인수업을위해 유학중이었죠』

두사람은 그로부터 2년동안 사랑을 키워갔다. 매주한번정도 데이트를 가지며 애정의 깊이를 더해갔으나「중공국적과 대만국적의 戀人」사이에는 당초부터 두터운 장벽이 가로놓여 있었다。

그가 연인의 땅으로의 망명을 결심한것은 일본을 떠나기 바로 하루전이었다. 쪼우는 연인과함께 일단 홍콩으로가 중공정부에 자신들의 결혼을 신청(중공에서는公安局과 소속직장의 허가가 있어야 결혼할수있다)할 생각이었으나 그것이 곧「사랑의 종말」을 뜻할수도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臺灣行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탄 홍콩행 비행기가 기착지인 타이페이공항에 착륙하기직전 이사실을 전해들은 機長은 무선으로 자유중국정부에 보고, 지체없이 망명허락을 받았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반드시 가정을 이룰수있어야한다는게 저의 愛情觀입니다. 나라와 사상, 인종을 초월해서라도 사랑하는사람끼리는 결합을 이룰수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로막는것은 인간의 自由에대한 중대한 억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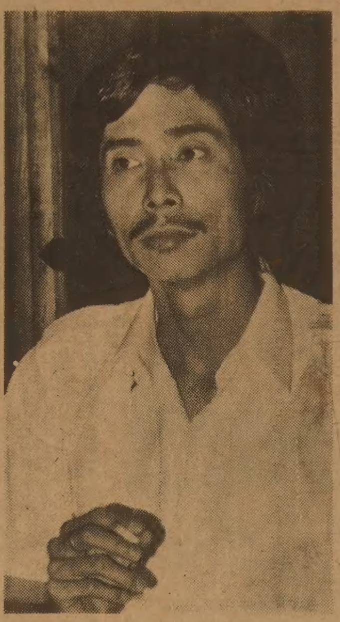
쪼우가 피력한 自由論에는 자신이 중공땅에서 軍기자와 北京의 인민미술화보사 사진기자생활을 하고있을때 사사건건 간섭과 비판을 받아야했던 체험들이 포함돼있다。

쪼우는 평소「金剛山구경」이 소원이었다。사진작가로서의 예술적인욕망이기도했다。그래서 동경의 북괴요원들을 찾아가 세차례나 金剛山촬영여행을 요청했으나『곤란하다』는 말로 거절을당했다。그는 그때 예술마저 체제의 굴레를 벗지못한다는데 울분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가족은?

『북경의 중앙TV관리국 기술부차장으로 있는 아버지 周海嬰(54) 어머니 馬新雲(51)과 두남동생이 중공땅에 남아 있고 여동생하나가 지금 일본에서 유학중입니다』

쪼우는 중공에있는 부모형제들의 안부도 안부려니와 지난9월24일 자신들의 결혼식에 부모를 모시지못한것이 몹시 가슴아픈일이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사랑의 亡命」이후의 새삶을 이야기하는 魯迅의 손자 周令飛씨。결혼식때 부모가 참석치 못한사실이 가슴아팠다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金海雲 특파원찍음】

◇망명 1주일만에 올린 결혼식서의 두사람。

滿洲서본 韓人민속공연 훌륭

″戀人들은 가정을 이루기를″ 한국젊은이에 사랑의 메시지

—중공에 있을때 한국인을 본적이있읍니까。

『북경에서는 북한에서온 사람들을 가끔 보았으나 제가 한국인을「발견」한것은 사진작품을 만들기위해 滿洲에 여러차례 여행하면서 였지요. 그곳에서 한국인들의 민속공연을 보면서 한국민족은 예술성이 강한민족임을알았읍니다. 놀라운솜씨였어요』

쪼우는 가능하다면 한국의 전통예술을 다시 보고 카메라에담고싶다고말했다. 金剛山못지않은山河가 한국땅에는 많이있다고 이야기하자,

『꼭 가보고 싶군요. 아직은 마음의 안정이 덜돼있는 형편이니까 내년봄에나… 그땐 金선생(기자를 두고한 말)이 꼭안내해 주세요』하며 소년처럼 얼굴을 붉혔다。

한국기자로부터는 처음 특별인터뷰에 응한지 2시간동안 이미 다정한 친구가 돼버린 쪼우는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기자에게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우정의메시지를 볼펜으로 썼다。「願天下有情人都成眷屬」。세상의 모든 연인들은 모두 가정을 이루기를 희망한다는 뜻이었다。淸末林覺民이란중국국민당혁명인사가 가족들과 헤어질때 남긴「與妻訣別書」속의 한구절로 지금도 중국인들에게는 곧잘 인용되는「사랑의 警句」였다。

【타이페이=金湧精특파원】

「阿Q正傳」의 作家

魯迅 1881~1936。중국의 작가로 본명은 周樹人。문학에 의한 민족성개조에 뜻을두어 창작, 사회비평, 해외문학소개에 주력했다。「狂人日記」「中國小說略史」、「阿Q正傳」등을 남겼는데 특히「阿Q正傳」은 중국사회저변의 인간상을 묘사한 名作으로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져있다。

정신 착란증세 醫大生 어머니刺殺、자살기도

6일 상오10시께 서울城東區杏堂1洞296의14 金모씨(53·무직)집 마루에서 金씨의 외아들 金모군(S의대3년)이 어머니 朴모씨(48)를 식칼로 옆구리를찔러 그자리에서 숨지게한뒤 자신도 복부를찔러 병원으로 옮겼으나 중태다。

金씨에 의하면 이날새벽3시30분께 대문여는 소리가나 나가보니 아들이 잠옷차림으로 문앞에서 청소부와 이야기를 나누고있어『새벽에 웬일로 나왔느냐』고 물었더니『어머니가 자꾸 나를 해치려한다』고 대답해『외아들인 너를 누가해치겠느냐』고 설득, 건넌방으로 데려다 놓았다는것。

金씨는 안방에서 잠자던부인 朴씨에게『저애가 이상하니 가보라』고 깨워 朴씨가『우황청심환을 먹이겠다』며 나간뒤 잠이들었는데 2시간후「으악」하는 소리가 나 뛰어가보니 朴씨가 피를흘리며 쓰러졌다는것。金군은 이어『이게 무슨짓이냐』며 말리는 아버지 金씨의 좌측어께도 두차례찔러 가벼운 상처를냈다。

경찰은 金군이 2·3일전부터「인생이 재미없다」「학교 애들이 나만 처다본다는것 같다」고 횡설수설 하는등 정신이상증세를 보여왔다는 아버지金씨의 진술에 따라金군이 정신착란증세를 일으켜칼을 휘두른 것으로 보고있다。

中大휴학생 1명

서울 鷺梁津경찰서는 6일 中央大 金淵明군(21·사회복지과 3년·휴학중)을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의하면 金군은 지난 3일낮 12시5분께 학교교문옆 높이5m의 아카시아나무에 올라가 반정부 유인물 2백여장을 뿌리며 시위를 선동한 혐의다。

서울市立大 2명

서울 淸凉里경찰서는 6일 서울시립대 姜秉洙(21·경영학과4년)、任昌煩군(23·무역학과4년)등 2명을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20代青年 카페리서 投身

釜山 15마일海上서 실종

【濟州】5일하오9시45분께 부산 서남쪽 15마일 해상에서 이날하오7시30분 부산항을 떠나 濟州로오던 여객선 카페리1호(3천8백톤 선장 육정치·43)갑판에 서있던 승객 김현준씨(29·서울龍山區漢江路1街)가 바다로 뛰어들어 실종됐다。

승객 하영화씨(35·부산)에 따르면 김씨는 바람을 쐬는듯 갑판난간곁으로 다가서 있다가 갑자기 바다로 뛰어내렸다는것。

사고가 나자 카페리호측은 배를 멈추어 1시간40분동안 수색했으나 찾지못하고 6일상오10시 濟州항에입항했다。

올들어 濟州와 육지부를연결하는 여객선상에서 모두13건의 승객투신사건이발생 4명은 실종되고 5명은 사망했으며 나머지 4명은 구조됐다。【鎔】

콘테이너 船積작업 人夫 추락사망

【釜山】지난5일하오7시께 부산시東區草梁5洞 제3부두에 정박중인 미국화물선 파나마호(1만5천톤)선상에서 콘테이너 선적작업을하던 김우생씨(52·東區水晶洞1048)가 5m아래로 떨어져 중상을입고 인근침례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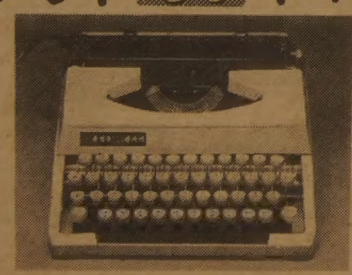
5行뉴스

◆파빌峰원정대 환영식

【釜山】세계에서는 3번째로 국내처음으로 히말라야 파빌봉(7、102m)정복에 성공한 釜山학생산악연맹 소속 파빌봉원정대 대장주시정(29)환영식이 6일하오3시 釜山역광장에서 5백여명의 산악인들이 참석한가운데 열렸다。

◆山林廳、育林주간 설정

산림청은 제6회 육림의날을 맞아 6일부터 1주일간을육림주간으로 정하고 10만5천ha의 산림에 비료를주고 잡목을 솎아내며 봄에 심은 나무를 돌보기로 했다。【鎔】

한대의 기계로 한글과 영문을 마음대로 칠수있는
공병우 한영 타자기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있어 경제적이며 활자가 아름다워 사무용(특히 교회주보용)으로 최적입니다.
○1분 설명듣고 5분간 연습으로 누구나 한글을 칠 수 있읍니다.
○어린이들 한글공부에 취미가 생기고 한글을 익히며 한국인의 긍지를 심어줄 것입니다.
○가정에서 쓰시기에도 적합하며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쌍초점타자기 발명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발명특허(1950년)
◇속도 한글타자기의 발명으로 대통령상 수상(1958년)
◇고성능 한글타자기 발명으로 외솔문화상 수상(1974년)
캐나다 총 대리점
연락처 : 245—0995 김영수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SPECIAL
6주년 기념
SANYO
$595.00

분납 가능
교포 경영
김 성 수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여성교양생활지
주간 女性
판매처·각한국식품점
지방구독자·3불(우송료포함)
구독신청·한국일보사
533-2361

Masa
진짜 일본음식
Japanese Restaurant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
977-9519
All major credit cards accepted
195 Richmond West

센터없는 延大 個人技로 커버

大學농구決勝리그 첫날 國民大에 역전승 84-73

1년생가드 兪載學 맹활약

漢陽大는 東國大눌러 1勝

◇2명제치고 드라이브인 슛 延世大 포워드 高明和(14번)가 國民大金明俊⑤과 安春永⑨을 제치고 드라이브인·슛을 날리고있다。

延世大와 漢陽大가 결승리그서 선승, 우승을 향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6일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된 제19회 추계대학 농구연맹전 6일째 결승리그 첫날경기서 延世大는 센터없는약점을 개인기로 커버하며 國民大에 84-73으로 역전승、1승을 먼저 올렸다。國民大는 후반 延大의 매치·업·존을 뚫지못한데다 센터 金星旭이 4분여를 남기고 5반칙으로 퇴장당해 추격에 제동이 걸렸다。한편 漢陽大와 東國大의 대전서는漢陽大가66-60으로이겨 역시 1승을 마크했다。

延世大와 國民大의 대결은 이번대회 하이라이트였다。國民大는 수비、延大는 공격이 강한 특징을 갖고있는데 延大가 오히려 수비에서 강함을보였다。

延大는 초반 金賢俊을 비롯하여 吳世雄、高明和의 슛을 고루터뜨려 선제리드를잡았다。延大의 최대약점은 센터가 없는것。高明和와 趙明富이 번갈아 센터·포지션을 지켰으나 國民大의 장신金星旭(1m92)을 막기에는 신장이 달렸다。

國民大는 金星旭의 포스트플레이와 金仁五·金明俊의외곽슛으로 맹렬히 추격、1분여를 남기고 金仁五의슛으로 전세를 역전시켜 전반을41-40으로 리드했다。

후반 國民大는 맨투맨、延大는 매치업존으로 수비를바꿨는데 國民大가 延大수비를 뚫지못하고 3차례의 공격미스를 연발、전반의 오름세가 꺾이고 말았다。

延大는 1년생가드 兪載學이 어시스트를 잘해주고 金賢俊、高明和가 골밑으로 파고들며 슛을 날려 점차를 벌렸다。

國民大는 기복을보이던 金仁五의 슛이 회복되면서63-62、1점차까지 따라 붙었으나 延大의 수비를 깨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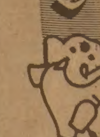
國民大의 金星旭은 4분을 남기고 5반칙으로 쫓겨나 추격에 실패했다。

◇결승리그 첫날

연세대 84 (44 40 - 32 41) 73 국민대
(1승) (1패)

한양대 66 (36 30 - 32 28) 60 동국대
(1승) (1패)

印度아시안게임 카운트다운 ⑦



레슬링

金4·銅4목표 메달밭으로 기대

국민들이 레슬링에 거는 기대는 크다。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76년 몬트리올올림픽 페더급 梁正模)을 따낸 종목이며 각종 국제대회서의 메달밭이 레슬링이다。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기때문에 그만큼 어깨도 무겁다。이번 아시안게임 레슬링에 출전하는 한국자유형선수는 9명。슈퍼헤비급만 제외하고 주니어플라이급부터 헤비급까지 모두 나간다。

한국은 금메달 4 동메달 4개를 최대목표로 잡고있다。주니어플라이급 孫甲道·플라이급 金鍾奎·라이트급 柳寅卓·웰터급 高鎔源등이 금메달 후보이고 밴텀급 李鍾泳·페더급 李正根·미들급 金泰雨·라이트헤비급 程龍鈞은 동메달을 노리고있다。

孫甲道의 최대 라이벌로는 북한과 日本선수。日本은 84년 LA올림픽에 대비, 주니어플라이급에서오랫동안 뛰던 노장대신 대학1년생을 출전시킨다는것。孫은 81년 유니버시아드서 동메달·79년 세계주니어선수권과 81년 세계선수권서 각각 은메달을 획득한선수여서북한선수를물리칠수있을것으로보인다。

金鍾奎의 최대 라이벌은 日本의 아사구라。아사구라는 지난해 세계선수권서금메달을 따냈지만 작년 日本 전지훈련때 연습게임서 金과 겨뤘는데 호각세를보였다。金은 몽고 선수에게도 경계를 늦출수 없다。

柳寅卓은 日本·몽고 선수들에게도 조심을 해야 하지만 이란의 차미디가 가장 어려운 상대가 될 것 같다。柳는 81년 세계선수권 결승전서 차미디와 맞서 계속 리드를 잡아나가다가 종료 5초전에 점수를 빼겨 역전패했다。柳는 이번 아시안게임을 설욕전으로 삼고 있다。

웰터급은 高鎔源과 이란의 모헤비, 日本의 기구찌의 3파전。올해 캐나다서 열린 세계선수권 대회서 기구찌는 4위를, 모헤비는 5위를 차지했다。高는 이번세계 선수권에 출전치 않아 직접 이들과 겨루지 않았지만 81년 세계선수권서는 4위를 차지한 점으로 미루어 모헤비 기구찌와 호각세。高에게는 세계 4위의 기구찌보다 5위의 모헤비가 더 까다로운적수가될것으로보인다。

李鍾泳·李正根·金泰雨·程龍鈞등은 일단 동메달이 목표지만 대진운만 좋으면 그 이상의 성적도 기대할 만하다。

◇레슬링 자유형 대표선수들이 태릉선수촌 야외연습장서 훈련하고 있다。【權周勳기자】

對陣運 좋으면 예상외 成果

몽고·이란등 무시못할 難敵

대표팀 金益鍾·吳正龍코칭스태프는 선수들의 훈련에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印度 경기장이 야외인점을 감안, 매트를태릉 선수촌 운동장모서리에 설치, 야외 적응훈련을 하고있으며 선수들의 훈련모습을 비디오에 수록, 단점을 보완해가고 있다。레슬링인들의열의도 대단하다。레슬링계 李相均 張昌宣 梁正模씨등 레슬링인들이 매일 훈련장에 나타나 후배선수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있다。【金仁奎기자】

◇한국선수단(자유형) ▲주니어플라이=孫甲道▲플라이=金鍾奎▲밴텀=李鍾泳▲페더=李正根▲라이트=柳寅卓▲웰터=高鎔源▲미들=金泰雨▲라이트헤비=程龍鈞▲헤비=金基正

◇올해 미스터·코리아로 뽑힌 昌勇燦。

실업야구 선발팀 日신약팀과 비겨

한국실업야구선발팀은 6일 日本西京구장에서 벌어진 日本원정3차전에서 日本신약팀과 1-1로 비겨 1승2무승부를 기록했다。이날 金始眞은 9회동안 3안타1실점으로 좋은 피칭을 보였다。

◇3차전전적

한국	100	000	000	—1
일본신약	001	000	000	—1

올 미스터코리아에 昌勇燦

올해 미스터·코리아에 昌勇燦씨(28·우성헬드클럽)가 뽑혔다。제34회 미스터·코리아선발대회가 5일저녁 54명(일반29、학생25명)이 참가한 가운데 문화체육관서열려 80㎏급에 출전한 昌勇燦은396점(총점420점)으로 영예의 그랑프리를 차지했다。昌은 키1m73、몸무게74㎏、가슴둘레1m23、팔둘레44㎝로 우람하고 자연스럽게 발달된 근육을 자랑하고 있다。

◇체급별 우승자 ◆일반부 ▲밴텀=趙鎔汶(빅토리)▲라이트=李榮溥(청도)▲미들=昌勇燦(우성)▲라이트헤비=河永浩(마산한일합섬)▲헤비=崔金植(영헬드클럽)

日가노盃 유도대회 대표選手團 결단식

오는11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日本 가노盃초청유도대회출전 한국대표선수단 결단식이 6일 유도회사무실서 거행됐다。

◇한국선수단 ▲단장=姜太秀▲감독=金在鉉▲코치=趙在基▲주무=金益三▲선수=宋順日(한체대)李璟根(영남대)朴成洙(유도대)金道俊(유도대)申琪澈(경기대)金炯益(한양대)安泳振(쌍용)

아시안게임 蹴球 組확정

한국、日·이란과 D組에

【뉴델리UPI=聯】제9회 아시아경기대회 축구종목에는 모두 18개국팀이 참가、4개조로 나뉘어 예선을 치르게되며 한국은 日本·이란과함께 D조에 편성됐다고 印度축구연맹이 5일 밝혔다。

4強이겨루게될 본선대진방식문제는 피터·벨라판 아시아축구연맹사무국장과 협의를 거친후 결정된다。

본선대진방식문제를 협의에 붙이는 것은 현재 전쟁을 수행중인 이란、이라크가 맞붙게될 경우 민감한 정치문제가 야기될것을 고려했기때문인것으로 전해졌다。

◇예선조편성

▲A조=북한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시리아 북예멘

▲B조=이라크 쿠웨이트 네팔 버마 남예멘

▲C조=인도 중공 말레이지아 방글라데시

▲D조=한국 이란 일본 오만

라운드·로빈方式 亞洲경기 女籠球

【뉴델리UPI=聯】제9회 아시아경기대회의 남녀농구경기 대전방식이 5일 발표됐다。

남북한 포함、16개국이 참가하는 남자부경기는 4개조로 편성돼 예선리그를 벌인다음 각조1·2위 8개팀이 다시 2개조로 나누어 결승리그를 가진후 각조의 승자가 결승전을 벌인다。

한편 여자부경기는 한국 북한 중공 인도 일본 말레이지아 태국등 7개국이 라운드·로빈방식으로 경기를 벌인다음 1·2위끼리 최종결승전을 벌인다。

金메달 60개노려 中共、亞洲大會서

【北京UPI=聯】中共은 오는 19일 印度 뉴델리에서 개막되는 제9회 아시안게임에서 약60개의 금메달을 획득할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과 日本도 이번대회에서 전보다 좋은 성적을 올릴것으로 전망한다고 中共대표단 부단장 우·충·유안이 5일 밝혔다。

우는 이날 北京에서 PTI통신기자에게 이같이 말하고 中共은 이번대회 21개종목중 복싱、골프、승마를 제외한 18개종목에 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舞姬와 즐기는 축구스타 스페인 월드컵 축구대회서 이탈리아를 우승으로 이끈 파올로·롯시⑤와 西獨의 칼·하인츠·루메니케가 82최우수선수로 선정되어 상을 받은후 파리의 유명한 리도舞姬들과 포즈를 취하고있다。롯시는 금상을, 루메니케는 은상을 받았다。【파리 4日AP합=聯】

아시안게임 휴대품 明細

고추장·굴비·냉장고도 갖고간다

297種 30톤 1억7천만원어치

제9회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한국선수단이 印度뉴델리로 수송할 개인및 단체장비는 모두 2백97종으로 무게가 30톤에 1억7천6백만원어치나된다。

남녀선수 2백80명과 임원 1백32명등 4백12명의 대선수단이 오는11일부터 약25일간 이용할 살림살이와 휴대품을보면 개인장비가 단복상하1벌、구두1켤레、운동복3벌、와이셔츠및 블라우스 2벌、양말4켤레、스카프1장등 12종으로 비용은 총액의 절반에 가까운 8천6백만원。

1천8백여만원이 소요될 단체장비는 참가배지9천개와 응원기2천20개、라이터 5백개、페넌트 3백장、사인펜 5백자루등 8가지이고 경기용품이 각종 육상기구와 볼등 19종에 3천1백만원。

가장 종류가 많은것은 식사를 위한 조리기구인데 1백50인용 가스버너 4대、초대형밥솥 1대、60인용 자동밥솥 2개、전기풍로25개、30인용밥솥5개、정수기25대、쿠커5개등 69종으로 가격은 7백만원。

식료품도 34종을 가져가는데 80㎏쌀 13가마와 특별주문한 곰국 쇠고기 장조림 통조림을 비롯 굴비 5백50마리、泰陵선수촌에서 담근 고추장 2독、된장 5독등이며 개인이 휴대하는 밑반찬도 김치 고추장 마늘 깻잎 짠무우 멸치등 4백25㎏。식료품구입대금은 1천7백만원이다。

이밖에 의약품과 의료기구가 68종에 4백만원、선물용품이 15종에 8백만원、세탁비누 사무용품 사진재료등 기타 품목이 84종、3백여만원상당이다。

전국양궁선수권

申貞順 또 한국新둘

4일 永東고운동장서 열린 제14회 전국남녀 양궁선수권대회 최종일 여자50m 싱글라운드서 申貞順은 325점을때려 黃淑珠가 갖고있던한국기록을 1점을 높였으며 50m더블서도 644점을기록、金珍浩의 한국기록 639점을 깨뜨려 2개의 한국신기록을 세웠다。이로써 申은 여자개인종합부문과 50m더블、30m더블서 1위를차지했다。

남자부선 田仁秀(부천고)가 50m더블과 30m더블서각각 649점、694점을 얻어 대회신을세우고 우승했으며 개인종합서도 2、504점을획득、林貫澤(전남체)을 54점차로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단체전남자부서는 韓體大가 7、256점으로 우승했으며 여자부서는 서울市廳이 7、440점을얻어 창단이래 첫우승을 차지했다。

◇최종일기록

▲여자50m더블=①申貞順644(한국신·종전639)②朴鍾淑634③趙允頂626④徐香順622(이상 대회신) ▲동30m더블=申貞順693②朴鍾淑684③徐炫珠678(이상 대회신) ▲동개인종합=①申貞順2、581(대회신·종전2、535)②尹美淑2、528③徐香順2、526

▲남자50m더블=①田仁秀649(대회신)②李允龍620(골드수18)③申東乙620(골드수15) ▲동30m더블=①田仁秀694(대회신)②李允龍682(골드수39)③丁錫均682(골드수38)

華僑배구선수 侯國基 鮮京女子팀 코치맡아

은퇴후 음식점경영…10월중순부터

◇侯國基코치。

화교 배구선수로 인기를모았던 키1m90의 侯國基(29·前금성통신)가 최근 鮮京合纖여자배구팀코치로 제2의 배구인생을 시작했다。얼굴이 검고 시원스런 侯國基는 현역시절 여성들의 전유물인액세서리를 남달리즐겨「액세서리선수」로 화제가됐었다。금빛 목걸이와 오른손팔찌、왼손 보석반지가 너무잘 어울렸다。이 액세서리를 최근벗어던졌다。『여자선수들앞에서 쑥스러워서라기 보다는 가르치는 일에 신경을쏟기위해서지요』

76년 金星通信 배구팀창단때부터 지난1월까지 선수로활약했던侯는 은퇴후 아버지가 음식점을경영하는 충남江景에내려가 있었지만 마음은 코트를 떠나지 않았다。지난10월 중순 鮮京 [illegible]勢昌감독으로부터 코치로 와달라는제의를받자 기다렸다는듯이 鮮京합숙소가있는 水原으로 올라왔다。

코치생활이 제겨우 한달。『선수 시절에는 꾀도피우고 했지만 코치는 그럴수가없어 현역때보다 훨씬 고단하다。그렇지만 오랜만에 배구볼을 만지니 구수한 고향냄새가나는것같다。여자팀이어서 아기자기한 맛도있고 [illegible]감독님과도 호흡이 잘맞는다』면서

鮮京은 지난해부터 하위권에 처져있다。주장겸 세터金愛姬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실업 초년병들이어서 좋은성적을 내지 못했다。설상가상으로 金愛姬가 西獨클럽팀으로 진출하기때문에 鮮京은 더욱 전력이 떨어지게 됐다。

그렇지만 올해 스카우트한 서울中央女高와 全州根映女高선수들이 다듬어질 내년연말쯤이면『뭔가를 보여주겠다』고 단단히 벼르고있다。根映의 공격수 출신 金榮姬를 지금부터 세터로 키우고있다。金이 세터로서 완성될때 쯤이면 국내 정상에도 오를수 있을것이라고 자신감을 비친다。

『鮮京선수들은 지금 자신감이 결여돼있지만 우승의 쾌감을 지금부터 심어주고 열심히 노력하면 틀림없이 좋은 성적을 낼수 있으리라 봅니다。감독님과 선수들의 교량역할도 하겠읍니다。중국인 핏줄을 타고나 태극기는 가슴에 달아보지 못했지만、후배들을 열심히 키우는것으로 대한민국에 조그만보답을 하겠읍니다』

미인으로 소문난 부인劉居蘭씨(29)와 세아들도 코치 侯國基를 성원하고 있다。【全】

스포츠短信

경기지도자 수강생 모집

◆…대한 체육회는 82년도 전기 경기 지도자 2급과정 수강생 60명을 모집한다。10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12월6일부터 23일까지 강습을 실시한다。

金基福씨 中大축구코치취임

◆…중앙대는 5일 金基福씨(39)를 축구팀 코치로、전임 李愚鎭코치를 감독으로 승격시켰다。7년간 국가대표 HB로 활약했던 金코치는 그동안 大邱大倫高코치로 일했다。

9일 서울 선수단 해단식

◆…제63회 전국 체육대회서 우승을 차지한 서울시선수단 해단식이 9일하오3시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서 열린다。

타격왕 피트·로즈 필리즈와 재계약

【필라델피아AP=聯】美프로야구 필라델피아·필리즈의 타격왕 피트·로즈(42)가 필리즈와 다시 1년계약을 맺었다。

로즈는 83년시즌 1백30게임이상 뛰게될경우 연봉1백70만달러외에 10만달러 이상의 보너스를 지급받게된다。

한편 82년시즌도중 신시내티·레즈에서 쫓겨난 존·맥나마라는 캘리포니아·앤젤레스의 새감독으로 기용되었다。캘리포니아의前감독진·마우치는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우승의 공적을 세웠으나 리그 결승시리즈서 밀워키브레이브스에 2승후 3연패로 역전패하는바람에 해고당했다。

●백학같이 우아한 미!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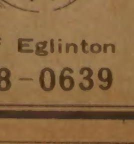
웨딩 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청첩장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생애 최고의 순간들을 추억으로 담을 사진을 책임지고 촬영드리며 기타 결혼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실비아·원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전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a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컴퓨터 식자 서비스 533-2361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제동)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일요일(오후4시부터) 쇼핑은 25불 할인받는 삼복식품으로 오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복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볼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2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시간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의 류 수 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학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광고문의 533-2361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 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이경복회계사무소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경험있는 풀타임 재봉사 구함.
전화 : 368-2819 Mr. 왕

◉Dish Washer구함. 점심시간: 월-금 11:30am-2:30pm
◉경험있는 요리사 구함. 저녁시간 4pm-11pm. 주6일
114 Laird Dr. 전화: 421-6016(오후 2:30이후)

비데오머신가게 메니저 구함.
남·녀 불문. 아침11시~저녁11시
전화: 821-4791, 638-0713

스토아 여자 파타임 캐쉬어 구함
다운타운 지역.
전화: 488-1634

밀크스토아 메니저 구함.(오타와 지역)
약간의 보증금. 유경험자 우대함.
전화: 624-5817(토론토)

가사일 돌보실 분 구합니다.
월~금 오후부터. 더퍼린지하철 부근.
전화: 536-8262, 533-2361 Mrs. 조

〈급구〉 Pizza 집에서 Cash와 Order 받을
영어에 능통한 여자분 구함
전화: 267-2292(Mr.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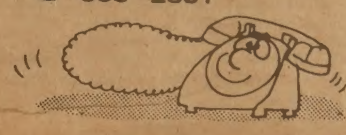
버라이어티 가게에서 캐시와 막일할 경험있는
헬퍼 구함. ◉하루 9시간. ◉주6일.
전화: 534-3338 Mrs. 김(오후3시 이전)

◉남자 헬퍼 구함: 오후3시-밤11시(주 6일)
◉여자 캐쉬어 구함: 토·일요일
전화 : 921-0624

입주하셔서 두 아기 봐주실분 구함.
(5살, 1살)
전화 : 447-1460

도너스 가게서 일할 파트타임 여학생 구함.
다운타운 소재.
전화 : 222-3877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 동반자 구함. ★본인은 컴퓨터 전문가, 신사, 캐나다 시민권자, Scandinavia 태생, 독신자, 참되고, 교육받고, 유머가 있으며, 세련되고 진실된 한국여성을 만나고 싶읍니다. 25세-34 정도. 친구나 결혼할 용의가 있으신 분. 영어로 문의바람. BOX 833.
Station K, Tor. Ont. M4P 2H2

기 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개 인 지 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휜치 & 베더스트) 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 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매 매

재봉틀 Simpson's 나무책상포함 ◉$195.00
Good-Condition.
전화: 767-1702 김(오후6시 이후)

조그만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
스카보로 지역. Lottario 머신있음. 아스킹: $15,000+스탁
전화 : 266-5715

형편상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9시 문닫음)
주매상: $4,000 렌트: $450 로타리오와 비데오머신에서 $1,000수입 7050 Air Port Rd.(at Derry Rd.)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몬트리얼 지역
주매상: $12,000 렌트: $750 아스킹: $120,000+스탁
전화 : (514)366-8393 Mr. Plante

잘 꾸며진 레스토랑 매매. Yonge & St.Clair
200좌석. 좋은 리스. 빌딩과 붙었음.
전화 : 924-1435 Jim or Louis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25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set.$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몬트리얼시내 영어지역.
(Plaza 내 2,200Sq.Fit.) 주매상: $10,000(81년도 세무보고 $468,650) 렌트: $780. 5년+5년. 영업시간: 주60시간(일요일 닫음) 시간연장 가능함. ◉백인한주인이 18년간 운영해온 안정된 가게임. 아스킹: $59,000 +스탁(4만) 캐시다운: $55,000 잔액: 10%모기지. (514)691-4751, 691-3704

Dry Cleaning Depot Store for Sale.(Lawrence & Allen Express)
Plaza 안에 있음. 12 Flemington Rd.
전화: 759-8658(R). 781-6774(B)

우체국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3,000. 아스킹: $15,000+스탁. ★우체국이 있으므로 이민자나 시민권자에 한함. ◉전화: 691-5297 Mr. Gilbert.

자동차 매매. ▲'73 PONTIAC PARISIENNE. 350 Auto.
쌍 마후라, Power Handle, P.B. P.W. 에어콘. 76000마일, Excel Con
여자운전, CEPT. $1,850. ◉전화: 241-6392

세탁소 매매(pick-up) Almar Cleaners
640 Rogers Rd.(at two block west of Keele)
전화 : 653-6335, 598-4327

비데오 아케이드 매매
아스킹: $20,000 리스: 4년+3년
전화 : 691-8337

그로서리 Store 매매. (이층은 살림집)
년매상: $200,000. 가격: $95,000 (일요일 휴점)
모개지: $30,000 at 8¾%. 연락처: 519-327-8368

그로서리 스토아 급매.
-살림집 포함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많은 권리금 기대하지 않음.
-G.M.회사에서 가까운 바쁜 거리.
230 ONTARIO ST.(전화: 1-685-5863)

● Smoke & Gift shop
주6일 open 주매상 6,500~7,000
리스 1990년 렌트 1,100(2층아파트 포함)
● Coffee & Snack shop Shopping mall내
6일(open) 주매상 10,000 리스 4년+5년 Option.
● 드라이 크리닝 다운타운 고급주택가에 위치함.
주매상 3,000불 렌트 1,000불 리스 9년
● 도낫스 주 9,000불 리스 15년
A.E. LE PAGE Real Estate 전화: 741-9170 Mrs. 우.

가게렌트 또는 빌딩 팝니다.
Dawes Rd. & Victoria Pk. Ave.
전화: 461-5386 저녁7시~10시.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개인, 소구룹, 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출장·주말지도)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셋방(1층 Flat)-1Bedroom Apt. 다운타운지역
차고·세탁기·히팅등 포함 월 $430
독신자 또는 부부. Christie×Dupont(532-9581)

방세놓습니다. Victoria Pk. & Finch코너
여자분에 한함.
전화 : 497-4221 Mrs. 김

콘도미니움 For Rent or Sale(3 Bed Rm.)
12월1일부터 입주가능. Victoria Pk. & Danforth(써브웨이 건너편)
◉렌트: 월$700(관리비 포함) ◉Sale: $64,000. 전화: 694-4812

3층 건물 렌트합니다.
Bathurst & Queen
음식 장만하게 만들어 졌음.
부엌, 대형 냉동기, 냉장기, 스토브, 씽크.
3층은 살림할수 있게 되어있음.
전화 : 364-1629(오전 9시-오후 5시)

집 매 매

4 Bed Rm.(Double Garage)
몰개지 : 11¾%.
장소: Morning side & Lawrence Ave. E.
(Mall 근처)
가격: $108,900
전화: 497-7272(B)·281-0672(R) Melwood.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케네디 꽃집
○각종 Arrangement. ○Plant. 화환.
○주문배달. ○꽃도산매.
2196, 2252-4 Bloor St. W.
전화: 762-1572, 762-9854 김웅일.

도 서 판 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 532-7094(B) 138 0628(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조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RALPH M. LEVINE B.A.(Barrister and Solic 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불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광고문의 533-2361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 279-7774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